

커피 바다, 부산

사람과 경관의 연결

2022
부산학
연구총서

사람과 경관의 연결
커피바다, 부산



BDI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발간사

부산학은 부산의 사람, 공간, 역사, 정체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부산학은 부산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미래상을 발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및 실천 활동을 포함합니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부산학 연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정책 인문학을 기조로 내세우고 부산학 연구의 네트워크와 미래 부산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공유해 왔습니다. 올해는 4권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시민총서는 산업화시대 부산의 주거문화를 다루었습니다. 부산의 다양한 주거 형태는 6.25 전쟁,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형성되어 왔으며, 부산시민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독특한 부산만의 주거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타 도시 주거 형태와는 차별화된 주거 문화의 변천 과정은 비(非)계획적인 도시 확장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는 현재 부산의 정체성(Identity)을 상징하고,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찰하였습니다.

교양총서에서는 커피도시 부산을 조명하였습니다. 커피로 인한 부산사람들의 삶과 생활상의 변화, 산업적 성장 등 부산지역의 커피 역사 및 시대적 현상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커피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환경적 특성 등 로컬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부산의 커피산업을 살펴보고 복합문화 공간이었던 다방문화부터 카페문화에 이르는 부산의 커피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커피로 인한 부산의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변화와 부산 출신 월드 바리스타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등 미래 지향적 관점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총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마을시리즈 최종본으로 낙동강 하구 연안의 구포, 덕포, 대저·명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과거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각 마을들이 지닌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 변화와 발전 과정 역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습니다. 현재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자연마을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주민이 타지로 옮겨가는 한편 새로운 주민들이 이들을 대체해 대거 이주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지역사 인식과 마을공동체 회복,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기획총서에서는 부산의 사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말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통해 부산의 정신, 역사, 문화, 사람, 기질 등 부산인의 생활방식과 삶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사투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숙고하는 과정 안에서 부산 지역 사투리를 활용한 미디어 속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아이디어 연계를 통한 부산지역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투리를 통해 부산 언어문화(Busan-Culture)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자랑스러운 도시 부산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집필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센터 운영과 연구 방향, 연구과제에 대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센터자문위원 및 과제별 자문위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부산학연구센터의 연구와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부산학연구센터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연구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부산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부산연구원 원장 신현석

contents

발간사	5
들어가며	12

I 부산과 커피의 만남

1. 조선의 경계지대에서, 커피	15
2. 기록에 보이는 최초의 커피음용 조선인, 민건호	26
3. 부산에서 들어온 커피, 조선에 퍼지다	34

II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카페

1. 일제강점기, 부산에서의 다방과 카페	44
2. 다방의 시대(1950~60년대)	73
3. 음악다방 시대(1970~80년대)	102
4. 커피숍 시대(1990년대)	108
5. 커피전문점(2000년대 이후)	111

III 커피 바다, 부산

1. 부산의 카페거리	123
2. 바다를 품은 카페	140
3. 항구에서 대해로	156

IV 커피 따라 부산 한 바퀴

1. 생두의 수입과 로스팅	172
2. 바리스타의 산실	174
3. 부산 커피 브랜드의 탄생	177
4. 커피를 특별하게 소비하는 사람들과 박물관	183
5. 커피 페스티벌과 커피 도시 부산의 미래	190

참고문헌	194
------	-----

I

부산과 커피의 만남

1. 조선의 경계지대에서, 커피
2. 기록에 보이는 최초의 커피음용 조선인, 민건호
3. 부산에서 들어온 커피, 조선에 퍼지다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커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가 여럿 있으며, 저마다 커피와 연관된 특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커피를 파는 공간이 최초로 출현했던 인천, 아름다운 해변가에 카페 거리를 만든 강릉,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과 카페가 커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서울 등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직은 부산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에 커피는 없어 보이지만, 부산을 방문하여 커피를 마시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부산의 커피는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되기에는 너무 다양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공간'의 다양한 조합으로 '커피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최초의 커피는 고종 황제가 즐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여러 커피 전문가들은 배송된 화물로서의 커피를 언급하거나 커피를 마셨다는 음용 기록을 찾아내어, 한국과 커피의 인연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일찍임을 밝혀내고 있다. 최초나 기원에 관한 논쟁은 새로운 기록이 발견되면 언제든 깨지기 마련이어서, 지나친 논쟁은 부질없기도 하다. 커피와 관련된 독점적

인 지위를 찾는 것보다는, 커피와 도시와의 특별한 인연을 설명하면서 저마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부산은 개항 이후 근대 물품이 주로 수입되는 곳이었으며 그에 따라 세관이 일찍부터 형성된 곳이다. 물건과 사람이 국제적으로 움직였고, 그에 따라 그들의 습속이 전파된 곳이 부산이다. 부산 지역의 향토 사학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음용한 기록을 부산의 세관 관리가 남긴 일지에서 찾아냈다. 부산과 커피의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다. 한국전쟁 시기에 부산은 전쟁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임시 수도 역할을 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이 만날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는 일상적인 사적 만남이나 예술가의 교류뿐만 아니라 공적인 행정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다방이 활성화된 계기가 되었으며 부산은 이러한 문화의 진원지가 되었다. 미국의 국무부는 부산 지역의 다방 문화 조사를 근거로 미국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대중 공간으로 다방을 지목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커피 생두의 95%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고 한다. 물론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므로 생두 자체의 유입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관 창고나 가공 설비가 구비된다면 이른바 '스페셜 커피'를 생산하는데 절대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부산은 커피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바다는 사람과 사건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었다. 바다는 시대마다 그 기능이 달라졌고, 장소는 의미를 잃거나 새로 생성되었지만, 커피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매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커피가 이동하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서의 부산 이야기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단지 부산의 커피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인이 차를 마시면서 생성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라 믿는다.

1

조선의 경계지대에서, 커피

아침 출근길 또는 하루를 시작하며 커피 한 잔,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우유나 당류를 섞지 않으면 쓰고 탄 맛이 나지만 묘하게 자꾸 끌리는 이 음료와 과거 한국인들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다¹.

영국의 역사학자 피터 버크는 『문화 혼종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모든 문화의 역사가 문화 차용의 역사”라고 하였다. 문화의 교섭과 혼종 현상이 다른 곳보다 더욱 활발한 대표적 공간이 메트로폴리스와 항구 그리고 경계지역이라 한다². 피터 버크의 시각에서 보면 부산은 문화의 교섭과 혼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계지역과 항구라는 두 요소를 모두 갖춘 도시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러했던 모양이다. 『충장공 정발전망비』

1 강찬호, 「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 -개화기와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8-3, 2013. 김순하, 「한국 커피시장의 발전과정에 관한 문헌적 연구-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2-3, 2013. 김시현·윤여태, 「개화기 한국 커피역사 이야기」, 피아리스, 2021. 이길상, 『커피 세계사+한국 가배사』, 푸른역사, 2021. 등

2 피터 버크 저, 강상우 역, 『문화 혼종성』, 2012, 이음, 111쪽.

에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목구멍과 같은 요새이고[我國南徼之咽喉], 남쪽 오랑캐의 배가 왕래하는 출발점[蠻船往來之初程也]”이라고 하여 부산을 국방과 외교라는 양날의 검처럼 여겼다. 그런데 성리학적 세계관에 투철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부산은 강상(綱常)의 도(道)를 모르는 “남쪽 오랑캐의 배[蠻船]”가 드나드는 곳이었다. 이국인들과 그들의 문화·물산이 쉽게 유입되는 곳은 육지보다 ‘바다’였고, 그 때문에 조선의 주류 지식인보다는 비주류의 경계인들에게 더 친근한 곳이었다. 한반도에 이국의 문화 특히 커피가 들어오는 첫 장면에서는 육지보다는 바다, 조선의 최고 상류층보다 비주류 경계인들이 주인공이었다.

1839년, 오랫동안 중국이 중심이던 동아시아 세계에 큰 파문이 일어났다. 중국 주룽반도 앞바다에서 영국의 엘리엇의 함대와 임칙서의 청해군의 충돌함으로써 발발한 아편전쟁이 그것이다. 이는 단지 청의 변방에 일어난 무역소요 사건 정도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중국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는 대 이변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아편전쟁 후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서양오랑캐(洋夷)들의 세계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당시 저명한 청나라 지식인인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1844)나 서계여(徐繼畬)의 『영환지략(瀛環志略)』(1850)이 1845~1850년 무렵에 조선에 유입되었다. 그 책에는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생산되는 커피에 대해 “가배(珈琲, 咖啡), 가비(架非, 加非), 초두(炒豆)”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다. 조선의 지식인 중에서도 중국 밖의 세상에 대해 탐구한 눈 밝은 사람들이 있었다. 윤종의(尹宗儀)는 『벽위신편(關衛

新編)』(1852)에서, 또 최한기(崔漢綺)의 『지구전요(地球典要)』(1857)에서 서양오랑캐들이 즐기는 커피 제조방법이나 음용법 등을 소개하였다고 한다³. 윤종지와 최한기는 연암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와도 교류했고 개화파 1세대인 박규수는 아버지 박종채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이 커피를 직접 즐겼는지는 알 수 없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틀이 생기는 순간 조선 지식인들에게 커피는 세상에 대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커피를 요청한 시메옹 프랑수아 베르뇌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커피라는 작물이 소개되기 전부터 조선에서는 이미 커피를 접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조선이

3 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31~53쪽.

금지하던 '서학', 즉 천주교에 심취한 천주교 신자들이다. 그중에서 정약용의 누이와 혼인했던 이승훈은 일찍이 집안에 있던 서양 서적을 통해 천주교를 접한 후 1783년 말에 베이징에 가서 북당(北堂)을 방문하였고 그 이듬해에 예수회 선교사 루이 드 그라몽 신부에게 영세를 받았다. 이 시기에 조선을 떠나 직접 외국인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았다면 이승훈과 그의 동행자들이 커피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1831년 조선교구가 설정되었고 1837년에 조선교구가 설정된 후 프랑스인 앙베르 신부(Laurent-Joseph-Marius Imbert, 范世亨)가 그해 5월에 조선으로 들어왔지만 2년 후 조선인 신자들과 함께 1839년 기해박해로 순교하였다. 외국인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여 머물렀던 최초의 사례이다. 게다가 천주교 신학생으로 선정된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등이 조선을 떠나 1837년에 마카오에 있던 파리외방전교회 동양정리부에 입학했다. 많은 논자들은 그들이 마카오에서 신학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조선에 커피를 들여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조선교구 네 번째 신부로 프랑스인 베르뇌신부(Siméon-François Berneux, 張敬一)에게서 찾을 수 있다. 1856년에 조선에 입국해서 사목하던 그는 파리외방전교회에 사목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한 편지를 남겨 그의 서한집에 실렸다. "내년에 조선으로 들어올 선교사 편에 이 물품들을 보내주십시오. 적포도주나 백포도주 50병들이 2상자, 코냑 4다스, 커피 40리브르,

흑설탕 100리브르" 이것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에 유입된 최초의 커피로 알려져 있다⁴.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제에 반대하고 조상제사에 비판적인 종교적 교리는 커피와 함께 조용히 조선에 스며 들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최초의 조선인 커피 음용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조선의 주류 지식인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승려 이동인이다. 그는 어린 김옥균, 서재필에게 유럽 각국의 사진엽서를 보여주었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개화 문물을 전파한 개화파 1세대였다. 통도사와 범어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그는 강화도조약 직후에 조선의 유일한 개항장이었던 부산에 온 오쿠무라 엔신(奥村園心)과 부산주재 일본 공사관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實)에게 접근하였다. 이동인은 그들을 통해 일본으로 가고 싶어했지만 당시 조선정부는 각종 부역에 동원하거나 천대하던 승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도일할 수 있는 방법은 밀항뿐이었다. 1879년 9월에 엔신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밀항한 그는 일본에서 유학하였다. 1880년에 일본 승려의 수계를 받은 뒤 일본 최고의 개화지식인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교우를 쌓는 한편 당시 주일영국공사 서기관 어니스트 사토(Ernest Mason Satow)에게 접근하여 조선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향후 조선과 영국과의 관계 수립을 위한 만남을 이어갔다.

4 이길상은 당시 커피는 터키식으로 끓여내었고 대체로 5천 잔에서 만 잔 정도를 끓일 수 있다고 보았다(이길상, 앞의 책, 2021, 182~190쪽). 김시현·윤여태는 베르뇌신부가 들여온 커피를 마셨던 곳은 1861년 서소문에 집이 있던 흥봉주의 집이었을 것으로 논증하였다(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60~67쪽).

그런데 1880년 2차 수신사로 온 김홍집이 일본인들의 소개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이동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김홍집은 조선으로 귀국할 때 이동인을 데리고 와서 승려의 신분으로 고종을 접견시켰다. 국내의 정세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을 높이 산 고종은 이동인에게 1881년에 미국과의 수교를 위한 물밑작업으로 일본에 있던 청의 하여장(何如璋)을 만나게 하는 등 미국과의 수교를 준비시켰다. 그해 말에 고종에게 군함 구입을 알아보라는 밀명을 받은 이동인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갑자기 실종되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동인의 활동을 통해 볼 때 일본으로 밀항하기 전에 이미 이동인은 개항 직후 부산과 일본을 넘나들며 일본인 및 영국인과 직접 접촉하면서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보다 빨리 커피를 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최초로 커피를 음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은 개항 전후에 비공식적으로 근대문물에 접했던 주류 지식인이나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관료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선에서 흑세무민의 사상으로 낙인찍혀 금지된 천주교인들이나 송유억불의 정책하에서 양반사회의 각종 혹독한 잡역에 시달리던 승려들과 같은 '경계인'들이었다. 그들이 근대문물을 접하는 곳 또한 조선의 성리학적 세계관 속의 한양이 아니라, 이른바 '천주쟁이들'의 뒷골목이거나 변경이었던 부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화도조약 직후부터 1879년 원산항, 1880년에 인천항이 개항되기 전까지 3년간 부산은 조선의 유일한 개항장이었다.

하지만 조선이 강화도조약으로 '근대'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

1880년 이후가 되면 조선정부에서 국가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조선의 최고위층 관료와 지식인들이 커피를 접하기 시작한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인물로 1880년대에 조선 개화정책을 주도하던 김홍집이다. 그는 2차 수신사로 1880년에 일본 체류하면서 이동인을 만나 그를 고종에게 데려갔고, 조선에서 개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통리기무아문에서 통상을 전담하여 1882년 미국·영국·독일 등과 조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조선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에서 각종 통상의교섭무를 도맡았기 때문에 각국의 외교관들과 다양한 교류를 했던 사람이다. 당대 조선의 외교 최일선에 있던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고위 관료들은 구미인들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접했을 것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통상조약체결기념 연회도 © 송실대 박물관 소장

그가 관여한 사건 중 하나가 일본과의 통상에서 무관세조건을 최혜국 관세조항을 추가한 외교적 성과로 유명한 1883년 한일통상조약 체결사건이었다. <사진 2>는 1883년 6월 22일에 있었던 조인식 연회 장면이다. 김시현·윤여태는 이 사진에서 각설탕이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여 커피를 대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궁중에서 열린 한일통상조약 연회에 초청된 손님은 왼쪽 모퉁이에 있는 홍영식, 오른쪽 모퉁이의 민영익, 건너편 중앙 흰옷을 입은 김옥균, 통영 삿갓을 쓴 뮐렌도로프(P.G. von Moellendorfl, 穆麟德)와 족두리를 쓴 뮐렌도로프 부인, 그리고 앞쪽 왼편 끝에 앉아 있는 일본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郎)라고 한다⁶. 당시 연회에서 쓰인 각설탕은 커피와 관련되어 보이지만 아쉽게도 커피는 직접적으로 그림에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커피가 연회에 등장한 것이 맞다면, 이미 1880년대 초반에 궁에서 외국인 대접을 위해 커피를 구해서 제조하는 방법을 익혀 연회에 내놓을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1880년대 초반 언젠가부터 김홍집은 자신의 사저나 별장에도 커피를 구비해 두고 있었다. 1884년 1월 조선의 보병사의 귀환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미국인 퍼시퍼 로웰이 “조선에서 최신상”이라고 평가받던 커피를 마셨다는 곳이 바로 김홍집의 별장이었다고 한다⁷. 구한말 외교의

5 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81쪽.

6 한명근, 「송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 유물 소개 5 -개화기 도화서 화원 안중식이 그린 <한일통상조약기념연회도>(1883)」 <송실시보> 969호, 2008을 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80쪽에서 재인용.

7 강찬호, 앞의 논문, 2013, 207쪽. 김순하, 앞의 논문, 2013, 331쪽.

최전선에 있던 김홍집은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커피를 구비하고 있던 매우 드문 조선인이었다. 외교통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양인들을 접대하기 위해 서양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뿐만 아니라 이를 대접하기 위한 커피기구와 찻잔 등을 구비하였고 커피를 내리는 법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더불어 위의 연회그림에도 등장하는 뮐렌도로프와 그의 외국인 직원들도 개항기 한국의 커피 역사에서 중요한 조연이다. 뮐렌도로프는 청나라 이홍장이 해관 개설에 필요한 인재로 김홍집에게 소개하여⁸ 1882년 12월에 조선에 입국한 독일인이다. 그는 청 해관에 근무할 때 그의 직원으로 일했던 중국인 당소의(唐紹儀)·주장령(周長齡) 등⁹도 초빙하였다. 조선주재 영국부영사로 부임한 윌리엄 칼스(William R. Carles)가 1884년 4월에 뮐렌도로프의 집에서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기록을 통해¹⁰ 뮐렌도로프 이후 조선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당시 조선에서 커피를 구해 마셨음을 알 수 있다.

8 김윤식, 『음청사』 하, 고종 19년(1882) 11월, 233쪽.

9 윤광운·김재승, 「구한말 개항기 조선 해관에 관한 연구 -고빙 외국인 해관원의 임면과 근무상황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연구』 10-2, 2004, 52쪽.

10 강찬호, 앞의 논문, 2013, 209쪽.



윌리엄 칼스가 커피를 대접받았다고 알려진 밀렌도로프의 저택.
1884년 밀렌도로프와 그의 해관 및 통리아문 직원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 시기 커피는 어떻게 유입된 것일까? 최근 일본 외무성에 보고된 무역현황 보고서인 『통상회편』의 1883년 인천항 수출입 일람표에 “커피(コーヒー)”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¹¹. 이때 커피는 50봉으로 가격은 15원이었으므로, 1봉당 30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한 해 전인 1882년의 『통상회편』 원산항 부분에 일본인 거류지에 필요한 자용품으로써 “가배(珈琲)”가 있음을 확인하였다¹². 이때 커피 수량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가격이 1원 69전이였다. 1883년 인천항 기록을 참고하여 같은 품

11 김순하, 「한국 커피시장의 발전과정에 관한 문헌적 연구-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2-3, 2013, 331쪽.

12 『통상회편』 2, 1882년 “元山港之部”

질, 같은 수량으로 가정하면, 1882년에 원산에서는 커피는 5봉 정도가 들어왔는데, 다음 해 인천에서는 50봉 정도가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상회편』의 1881년부터 1884년까지의 부산항 수출입일람표에는 커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는 당시 부산항의 위상을 볼 때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상회편』은 당시 일본 영사가 일본에서 부산, 인천, 홍콩 등 일본과 공식적으로 교역하는 항구에 수출입된 물품에 대한 공식적인 무역 보고서이다. 비공식적인 거래나 사람들의 왕래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물품 내역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88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일본 상인이 독점해왔지만 그 이후부터 청일전쟁시기까지 청과 일본이 조선시장을 두고 무역경쟁을 벌였던 시기였기 때문에¹³, 일본측 기록인 『통상회편』만으로 조선에 유입된 커피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¹⁴.

13 노상윤, 「開港期 朝鮮市場을 둘러싼 淸日의 貿易競争과 收奪에 관한 研究」, 경성대박사학위논문, 1990, 29쪽.

14 그 한 레로 1884년 부산에서 커피를 음용한 기록(『해은일록』 1884.7.2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회편』의 1884년 부산항 유입물품에는 커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록에 보이는 최초의 커피음용 조선인, 민건호

“조선인으로서 커피를 가장 먼저 음용”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증명되는 인물은 부산의 향토학자 이성훈의 지적대로 1884년 7월 부산항 감리서 서기관인 민건호(閔建鎬)이다¹⁵. 감리서에 근무하는 동안 쓴 그의 일기 『해은일록(海隱日錄)』에 따르면 당시 부산해관에 근무한 청나라 고빙직원인 당소의(唐紹儀)의 집에서 “갑비다(甲斐茶)”를 마셨다고 한다. 일본측의 『통상회편』 1884년 기록에서는 볼 수 없던 커피를 민건호가 마셨다는 것은, 일본을 통한 ‘공식적인’ 무역으로 커피를 입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문화 교섭과 혼종의 공간인 항구이자 경계지대라는 두 특성을 동시에 가진 부산항에서 서구세계의 기호식품이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부산의 감리서와 해관에서 최초의 커피 음용자들이 어떠한 계기로 커피를 접했는지 들여다보자.

15 <부산일보> 2021.09.16. “부산은 커피도시다4, ‘최초’보다 8년 앞선 ‘갑비차 마신 기록’ 찾았다” 이성훈 <조선 갑비의 모카, 부산> 강연(2021.11.21. 부산테크노파크 “커피에 산업 향기를 짓다” 부산 신산업 발굴 시리즈)

1883년 6월에 인천해관과 원산해관이, 7월 3일에는 부산해관이 각각 개설되었고¹⁶ 김홍집과 이홍장에 의해 독일인 뮐렌도르프가 초대 해관개설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시기 개항장과 조계지에서 외국인들의 활동을 관리하며 개항장에 설치된 해관의 관리 감독기관이 감리서(監理署)였다¹⁷.

민건호는 해남의 여흥 민씨 집안 출신으로 고종의 친정 후 1881년 4월 신사유람단의 일원이 되어 고베, 오사카를 거쳐 일본 외무성, 관세국 등을 방문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한 『동행일록(東行日錄)』을 남겼다¹⁸. 일본 관세국에 대한 조사시찰 경험이 계기가 되어 1883년 8월에 부산항 감리서에 감리로는 이현영이, 그 서기관으로 민건호가 임명되었다. 그들이 부산에 도착하여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은 1883년 12월 12일부터이다¹⁹.

19세기 말의 조선에서 해관과 감리서의 업무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통행 범위와 규정, 청국 거류지 경계 문제, 개항지 내의 회사 설립 등 개항 초기 조선이 근대적인 대외무역과 통상 및 조선 거주 외국인 관리에

16 단 부산항의 수세업무는 11월 3일이므로 이 날을 부산항 해관의 개시일로 보기도 한다(최태호, 『근대 한국경제사 연구서설: 한국 관세제도와 민족경제』, 국민대학교출판부, 1991, 84쪽.).

17 송정숙, 「조선 개항장의 감리서와 기록-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항 감리서 방판 민건호와 그의 일기 해은일록』, 부산근대역사관, 2014, 113쪽.

18 이홍상, 「구한말 전라도 해남 출신의 무관 민건호와 감리서 근무 그리고 그의 일기 『해은일록』」 『부산항 감리서 방판 민건호와 그의 일기 해은일록』, 2014, 64~65쪽, 74~77쪽.

19 『해은일록』 1884.12.12.

대한 중요한 업무였다. 부산항 해관이나 일본 및 중국 영사관, 동래 부산과 부산항 경찰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조율해야 하는 수많은 개항장의 사무였다. 민건호는 조선왕조의 전형적인 관료인식으로 세관업무는 중인의 업무로 여겨 해관에서의 근무에 자부심을 가지 못했지만²⁰ 근대 문물 유입의 최전선인 부산항에서 근무한 일상을 기록한 『해은일록』을 남겼다. 부산이라는 개항장에서 부산에 체류하던 외국인들과 관련된 통상 및 개항장 업무의 실무를 맡았던 민건호는 당시 조선의 고위관료층과는 다소 다른 환경에서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다.



부산항 감리서 서기관 민건호가 1883년부터 1914년까지 쓴 『해은일록』 © 부산박물관

20 이훈상, 앞의 논문, 2014, 66~67쪽.

『해은일록』에 따르면 민건호는 1884년 4월 19일에 일본인 서양요리점을 방문했다는데, 이때 커피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당시 부산에 있던 일본인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양요리에 커피가 등장하는 단계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커피에 대한 기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인물들과의 인연은 6월 말부터 보인다. 그해 6월 29일에 한양에 사는 윤정식(尹定植)이 남승선(南陞船)을 타고 부산에 정박하였다. 남승선은 상하이에서 인천-부산을 거쳐 나가사키를 왕복하는 청의 화물선이였다. 윤정식²²은 조선의 외국어 교습기관인 동문학교에서 수학했는데, 미국에 유학한 뒤 조선의 동문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있던 중국인 당소의 등이 해관 직원으로 고용되어 뿔뿔이 흩어지자, 1884년에 고종의 후원을 받아 상하이 유학길에 올랐다. 청으로 가는 무역선을 탔다가 경유한 부산에서 윤정식은 해관 직원이 된 당소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때 윤정식은 상하이행을 접고 당소위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던 것 같다²³. 당시

21 坂井 素思, 「コーヒー消費と日本人の嗜好趣味」 『放送大学研究年報』 25, 2008, p.34. 일본에서는 막부말기부터 메이지시대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커피가 소비되고 있었고 일본인들 사이에는 일부 특권계층이 즐기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커피콩 수입량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22 『역주 해은일록』 1권, p.169, 주 69 및 『통서일기』 1883년 9월 29일자에도 상하이로 떠나는 여학생도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1885년에 공금횡령 관련 건에도 등장한다(『한국근대사자료집성』 15권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정치국 북부와 겸 극동과 제194호 1891년 2월 6일 '5, 1885년 민영익 홍콩 방문시 동행 민주호와 윤정식의 파리할인은행 홍콩지점 예금 횡령 사건': 『윤치호일기』 제1권, 1886.1.23.; 1886.1.28.). 이후 윤정식은 1891년에 그의 해외경험을 토대로 복귀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전주사(前主事)로 등장하고 있고(『고종시대사』 3집, 承政院日記 高宗 28年(1891) 12月 13日 "高宗 28年 12月 13日(癸卯)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前主事 尹定植이 私私로히 外債를 欠通하였으므로 拿問重動케 하다") 1904년에는 일진회에 들어가 각종 임원을 맡으며 대표적인 친일파로 활동하였다.

23 『해은일록』 1884.6.29.; 1884.7.1.

당소의를 집은 조계지 근처였고 이때부터 민건호는 윤정식·당소의와 자주 만나며 친분을 맺었다.



1890년대 후반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해관(釜山海關)과 직원 사진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앞서 윤정식이 타고 온 남승선은 7월 17일에도 부산항에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흘 뒤인 20일에 민건호는 당소의를 집에서 당포도(唐葡萄)를 먹었다고 한다. 중국산 과일을 당소의의 집에서 대접받은 배경에는 바로 사흘 전에 부산항에 들어온 청의 무역선 남승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27일, 민건호는 윤정식이 머무는 당소의의 집에서 처음으로 갑비다(甲斐茶)를 마셨다.

당소의는 1874년 12세의 나이로 미국으로 파견하는 청 정부의 제3차 국비유학생[批留美幼童]으로 뽑혀 미국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수재

였다²⁴. 1884년 7월 부산 해관의 고빙직원이었던 당소의는 민건호와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맺다가 6월 말에 부산에 도착한 윤정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는 청의 화물선을 통해 중국에서 보내온 여러 물품을 부산항에 들여와 제공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포도(唐葡萄)나 갑비다(甲斐茶) 등의 외국산 물품도 그 과정에서 입수한 물품이다. 민건호가 마신 커피는 중국 화물선을 통해 개항장 부산에서 중국인 당소의가 제공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민건호가 처음 커피를 마실 때 함께 곁들여진 것이 ‘일본우유와 흰 설탕’이었다. 만성적인 위장장애에 시달리던 민건호에게 커피를 대접할 때 우유를 곁들인 것이다. 굳이 ‘일본’ 우유로 표기한 것은 아마 함께 제공된 다른 것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민건호가 부산에서 커피를 최초로 음용하게 된 배경에는, 부산에서는 청나라 상인의 수나 비중이 일본보다 월등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²⁵ 일본보다 청과의 교류가 많았던 개항 초기의 조선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830년대 청의 베이징이나 마카오를 통해 서구 선교사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연결되었던 사실, 1840년대에 청의 인문지리서를 통해 조선에 커피가 알려진 사실, 개항 초 김홍집이 청나라에 의지하여 근대문물을 도입하려 했고 청에서 활동하던 뮐렌도르프와

24 당소의는 1884년 9월에 부산해관을 떠나 뮐렌도르프가 있는 한양으로 돌아갔다. 10월 17일에 발생한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민영익이 뮐렌도르프 집에 숨어들자 그를 처단하겠다고 들이닥친 폭도들을 당소의가 쫓아냈다. 이를 인상 깊게 보았던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이때부터 당소의를 호형호제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1912년 중화민국의 초대 내각총리로 당소의를 임명하였다.

25 조세현, 「개항기 부산의 청국조계지와 청상(淸商)들」 『동북아문화연구』 25, 2010, 509쪽.

청나라 고빙직원들을 고용했던 사실이 상기된다. 부산항의 감리서 직원 민건호의 커피 음용 경험도 개항 초 조선에서는 서양 근대문물을 도입하는 경로로 일본보다 청을 더 선호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커피의 한역어인 “가배·가비(咖啡, 珈琲, 加非)”의 유래가 중국인지 일본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번역어인 가배·가비가 일본에 유입된 이후, 일본의 번역어인 ‘골히(骨喜), 골비(骨非), 가혜(哥兮), 가비을(哥非乙)’이 도태되고 중국식 한역어인 ‘가배·갑비’가 살아남았다는 연구가 있다²⁶.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온 커피를 일본이 아니라 중국인을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에서 19세기 말까지 서구근대문물은 일본보다는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던 당시 조선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성훈에 따르면 민건호의 커피 음용기록은 1884~1885년간 총 4 회였다²⁷. 민건호는 업무상 자주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만나 다과(茶果)를 대접받았다. 민건호는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대접받은 다과를 『해은일록』에서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커피를 마실 경우는 반드시 “갑비다”라고 분명히 구별하여 적고 있다. 그만큼 1884년 민건호에게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다른 다과와는 구별되는 특별하고 귀한 경험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26 田野村 忠温, 「音譯語「珈琲」の歴史」『阪大日本語研究』33, 2021.

27 이성훈 <조선 갑비의 모카, 부산> 강연(2021.11.21. 부산테크노파크 “커피에 산업 향기를 짓다” 부산 신산업 발굴 시리즈1)

이처럼 부산에서 커피의 만남은 오랫동안 유교적 세계관에 있던 한 조선인 실무관료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체계의 세상을 부딪쳐 나가는 과정에서 누린 특별한 경험이었다. 문화 교섭과 혼종의 무대였던 개항장 부산은 당시 조선에서 새로운 세상과 조우할 수 있는 무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부산에 들어온 커피, 조선에 퍼지다

민건호가 커피를 처음 마신 6년 후인 1890년에 또 다른 장면이 관찰된다. 1885년 이후부터 커피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890년 연말에 커피를 입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일에 민건호가 관여한 것이다.

이른 아침에 통영 영예(營隸) 김순기(金順己)가 “서울로 보낼 물종(物種) 22포를 윤선으로 수령해 들이는 일”로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 편에 통사(統使) 어른께 편지를 바쳤다. 곧 순사에게 “윤선에 운반하여 실으라.”고 분부하였다.

인천항으로 회항하는 삭선(朔船) 비후환(肥後丸)이 새벽에 부산항에 입항했다. 그 편에 독판대인(督辦大人)께 올리는 편지와 연대(煙臺) 10개, 매동(梅洞) 이참판장(吏參判丈)께 올리는 편지, 사동(社洞) 엄판서(嚴判書) 답서와 갑비(甲非) 3갑(匣), 정방판(鄭幫辦) 답서와 갑비 2갑... 『해은일록』 권2 1890.12.8. 필자 밑줄)

위의 기록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연말이라는 시점과 갑비(甲非), 즉 커피를 판서, 참관 등의 조선의 고위관료들에게 보낸 물품 목록이다. 그런데 통영 영예와 통사(統使)라는 조연들이 등장하므로 민건호가 개인적으로 한양의 고위관료들에게 준 선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12월 이전의 기록을 살펴보니, 1890년 11월 23일, 통영에 주둔하고 있던 통사(統使) 즉 수군통제사로부터 민건호에게 편지가 한 통 왔다. 『해은일록』에서 편지 내용을 옮기지 않아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틀 뒤인 11월 25일에 통영에서 민건호에게 다시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 관지에 대해 민건호는 10,000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8일, 통영 우수영 소속 노비가 서울로 보낼 물품을 수령하는 일로 부산항에 들어왔다. 이날 인천으로 회항하는 비후환(備後丸) 서울 고위관료들에게 보낼 각종 물품을 실었던 것 같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통영의 수군통제사가 서울의 고위관료들에게 연말 선물로 보낼 선물 22종을 민건호에게 부탁했음을 의미한다. 1890년 당시 독판(督辦)은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종묵(閔種默), 이참판은 권옹선(權膺善)으로 추정되나²⁸, 커피를 받았을 사동(社洞)에 사는 엄판서(嚴判書)와 정방판(鄭幫辦)은 미상이다. 서울에 있는 고위관료에게 보내는 선물 목록에 커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년 뒤인 1892년 12월에 민건호도 각지에 커피, 담

28 『고종시대사』 3, 95쪽. 1889년 7월 2일에 두 사람의 보임소식이 있다.

배, 카스테라 등을 선물로 보내고 있다. 민건호는 1892년에 방관으로 승진되었는데, 이는 누구의 부탁도 아닌, 자신의 방관 승진에 따른 정부고관과 지인들에 대한 민건호의 답례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광도환이 인천으로 향하여 떠났다. 주사 조종만에게 연죽 5개와 설고 1원어치이다. 병관 맥에 일목 5필, 연죽 1단, 대구 20미이다. 김관부사(훈동의 김홍집이다) 맥에 연죽 5단, 설고 2원 어치, 영국 담배 1갑이다. 참관 김영덕 맥에 연죽 1단, 감자 2궤, 대구 10미이다. 참관 김학진 맥에 연죽 1단, 대구 10미이다. 참관 이용식 맥에 연죽 1단 대구 10미이다. 방관 조병작 맥에 연죽 1단 대구 20미이다. 참관 계호 맥에 연죽 1단 대구 10미, 설고 1원어치이다. 직각 영철 맥에 연죽 1단 대구 10미이다. 승지 영돈 맥에 연죽 1단 대구 10미이다. 승지 영주 맥에 연죽 1단 대구 10미이다. 총무 정병하 맥에 대구 10미, 청어 10급(두릅) 설고 2원어치이다. 호관 박정양 맥에 연죽 1단, 갑비차 2갑, 청어 3급이다. ... (『해은일록』 권3 1892.12.14. 필자 밑줄)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몇 가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부산항 감리서에 근무하는 민건호를 통해 1890년대부터 서울의 지인이나 권력자들에게 연말 선물로 커피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1890년대만 하더라도 개항장에서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무역 물품으로 커피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건호라는 감리서 직원의 특수한 활동

이 개입되어야만 구할 수 있었던 물품이었다. 이때 열거된 수많은 물품은 부산항의 민건호를 통해서 배분된 것이다. 물론 이는 통영의 우수사가 민건호에게 한 개인적인 부탁이 계기였지만, 부산항에서 커피를 구해서 서울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커피를 받은 몇몇 사람의 면모는 대체로 서울에 거주한 정부 고위관료들이다. 1880년대 김홍집의 별장에서 퍼시퍼 로웰에게 대접했던 것처럼 단순히 외국인을 접대하기 위한 용도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종을 비롯한 왕실에서처럼 당시 조선정부의 고위관료들도 커피를 일상적으로 음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물'이 되었다. 비록 조선의 극히 일부지만 특권계층이 커피를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음용하기 시작했음은, 한국 커피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러한 1890년대 민건호의 활동은, 1890년대 중반부터 조선 정부나 고위관료들의 공식 활동에서 나타난 조선의 커피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했다고 보인다. 1890년대 중후반부터 각국 외교관이나 외국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거나 커피용품을 하사하기 시작했는데²⁹ 이는 앞서 본 민건호와 같이 비공식으로 커피를 들여오다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후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억제하려는 정

29 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150~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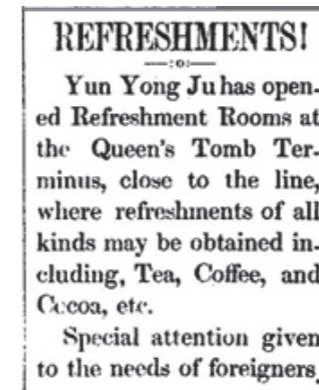
치적 움직임과 이에 따른 을미사변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고종의 아관파천과 이에 반발한 독립협회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격동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격동의 개항 말기의 부산에서 커피와 관련된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상황을 참고하면, 1890년대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근대신문이 출현하면서 커피와 관련된 내용이 신문광고로 등장하였다. 1896년에 독일인 알버트 고샬키(A. Gorschalki)라는 사람이 당시에도 고급원두였던 자바커피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독립신문> 영문판(1896.9.15.)에 실렸다. 이듬해 3월에는 그가 정동에 제과점을 열어 로스팅한 모카커피원두는 1파운드에 75센트, 자바커피는 70센트에 판매한다는 광고(1897.3.20.)도 보인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커피음료 판매점으로는 윤용주가 흥릉역에 개점한 Refreshment Rooms가 있는데 차와 커피, 코코아 등을 판다는 광고(<독립신문> 1899.8.31.)가 있다³⁰. 게다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898년 3월 고종이 손탁에게 양관을 지어 하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커피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³¹ 조선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외부장소가 1899년 무렵에는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양인들과 조선인 상류층을 상대로 한 구미식의 커피하우스뿐 아니라 중국식 다관도 등장한다. ‘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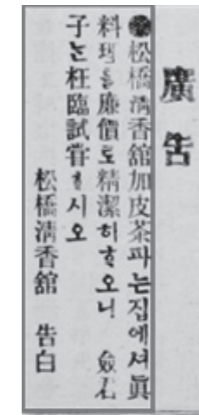
30 이길상, 앞의 책, 2021, 198쪽.

31 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117~119쪽.

요리점인 청향관(淸香館)(<대한매일신보> 1910.3.5.)에서도 가피차(加皮茶), 즉 커피를 판다고 광고(<황성신문> 1900.11.24., 26~27.)하고 있는 것이다³².



1896.8.31. <독립신문> 윤용주가 개업했다고 하는 Refreshment Rooms 광고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송교(松橋) 청향관(淸香館) 커피와 차(加皮茶, 가피차) 파는 집에서 진요리(眞料理)를 염가(廉價)로 정결하게 하니 여러 신사분들[僉君子]께서는 왕림하셔서 맛보십시오.

송교청향관
(松橋淸香館)
알림[告白]”

1900.11.24. <황성신문> 청향관(淸香館) 광고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이러한 커피하우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크게 두 측면에서의 사회적 변화가 선행되었다. 먼저 조선에서 1890년대 이후 커피를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마시는 향유자가 등장한 것이다. 더 이상 민건호와 같이 근대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수한 조선 관료에게 사적인 부탁으로 커피를

32 이길상, 앞의 책, 2021, 199~200쪽.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구매처나 수입처를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커피를 들여와야 하는 일정한 수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커피를 마시는 공간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드디어 조선인 고위층의 집이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금전으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나타난 것이다. 과거 고려시대에도 다점이나 다방이라는 가게가 있었고 신분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차를 즐겼던 역사는 있었다고는 하지만³³ 성리학적 세계관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조선에서 양반의 사랑방이나 향교와 같은 곳이 아닌 공적인 사랑방과 같은 곳이 등장한 것이다.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의 서울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서양식 다과와 함께 파는 커피하우스, 중국식 다관(茶館), 서양요리점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항 말기에 보이는 한국의 카페에서 대체로 '뽀이'가 서빙을 했고 여성이 할 경우는 '여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³⁴. 서양식 레스토랑과 양과자점, 중국식 다관의 성격이 결합되면서 이 시기 한국의 커피하우스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조선은 정치·경제·문화적인 면에서 일본의 영향이 압도적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33 이길상, 앞의 책, 2021, 211쪽.

34 이길상, 앞의 책, 2021, 198~200쪽.

부산은 전국에서 일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자, 일본을 통한 근대 문물이 가장 먼저 유입되고 향유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산의 커피문화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을까.

II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카페

1. 일제강점기, 부산에서의 다방과 카페
2. 다방의 시대(1950~60년대)
3. 음악다방 시대(1970~80년대)
4. 커피숍 시대(1990년대)
5. 커피전문점(200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부산에서의 다방과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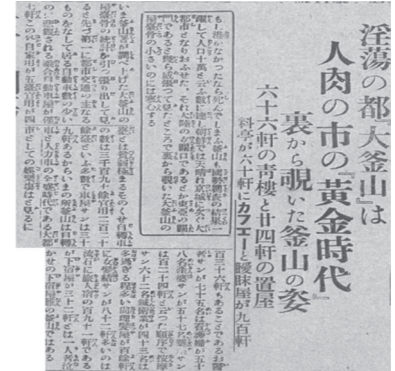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부산 카페와 다방에 대한 상반된 기억

일제강점기의 부산은 일본 입장에서 ‘대륙의 현관’이라거나 ‘동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으로 불렸다. 국권침탈 전인 1905년에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을 잇는 관부연락선이 경부선과 같은 해에 개통되어 부산은 유라시아대륙과 일본열도를 잇는 가교로 중시되었다.

이와 같이 부산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번안된 근대문화가 들어오는 창구로 각별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카페 역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이고, 부산은 커피문화를 찾아보기 힘들다거나 카페나 다방이 거의 없었다고들 한다. 특히 아래에 제시한 사진은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2년에 부산의 다방 역사에 대한 기획기사인 “다방비화, 번창일로의 20년사”(〈부산일보〉 1962.10.11.)이다. 여기서는 “일제 때 부산에 다방이라고는 겨우 역전에 후루사도(내고향), 시엔소(紫煙莊=지금의 천연장), 제일(第一=지금의 예텐), 우구이스(우구이스=지금의 에텐) 등 너댓 곳밖에 없었다. 다방이래야 커피와 밀크를 내놓을 정도로 간소하고 소위 멋쟁이나 문화인들이 출입할 뿐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방비화” <부산일보> 1962.10.11. 기사 일부
©부산일보



“음당한 도시 대부산은 ... 카페와 아이마이야가 900곳” <조선시보> 1926.2.6.일부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커피 마다, 부산

반면 일제강점기 부산에 대한 신문이나 잡지를 들여다보면, “음당한 도시 대부산은 매춘의 도시 황금시대 ... 카페와 아이마이야(曖昧屋: 소형매춘업) 900개소”(〈조선시보(朝鮮時報)〉1926.02.06.)나 있었다거나 “각 점포가 엄선한 미인 여급을 거느려 다채로운 부산의 봄은 단연 카페시대를 불리와 경성(서울) 혼마치(현 충무로)와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는 것”(〈부산일보〉 1932.03.15.)이라는 평가가 있다.

일제강점기 부산 카페의 상반된 평가는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서울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라는 평가는 무엇 때문이고, 그럼에도 겨우 너댓 곳밖에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커피문화와 향락은 어떤 관계였을까? 20세기 전반의 부산 커피문화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확장과 단절이라는 모순된 평가가 공존하는 것일까? 이를 이

해하기 위해 앞서 우리는 잠시 일본의 카페와 커피문화를 먼저 둘러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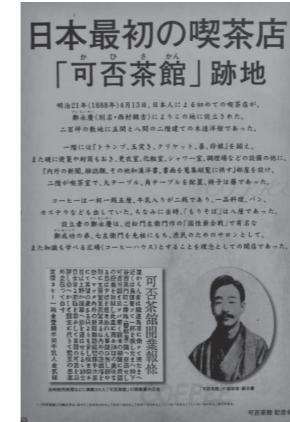
짐작하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자주적으로 근대문화를 받아들일 권리를 잃고, 다양한 근대문화를 일본 제국주의라는 제한된 통로만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1910년대 후반부터 카페와 다방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흐름이 조선 특히 부산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20세기 전반 일본의 카페문화를 살펴본 뒤라야, 이것이 조선 특히 부산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해방 이후에 부산의 카페·다방문화가 단절이 있었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먼저 20세기 전반 일본의 카페문화를 살펴본 뒤 “향락과 음탕과 모던과 여급”이 있던 일제강점기 부산의 다방과 카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일본에서의 카페 발생과 유행

주지하다시피 일본에서 커피는 에도시대부터 전해졌지만, 1867년 일본이 미국에 의해 개항된 지 몇 년 뒤인 1876년 요코하마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관(御安見所 コーヒー茶館 또는 油繪茶屋)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구문화와 문명개화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킨 로크메이칸(鹿鳴館 1883년~1887년 무렵) 시대³⁵ 이후에야, 일본에서는 밀크 홀과 같은 킥다점

35 로크메이칸(鹿鳴館) 시대란, 1883년(메이지 16년) 우리에게는 을미사변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일본 내의 서구화정책의 일환으로 건축한 서양식 2층 건물이다. 1887년 이노우에 카오루가 외무대신에서 사임할 때까지 황족이나 귀족의 바자회,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喫茶店: 킷사텐, 찻집)이 출현하기 시작했다³⁶.



도쿄 우에노(上野)에 있는 일본 최초의 다방(喫茶店) '가히사칸' 유적지의 기념비 ©이미란

로크메이칸시대의 분위기를 타고 일본에서 최초의 카페로 알려진 '가히다관(可否茶館)'이 1888년에 개점하였다. 사장인 테이에이케이(鄭永慶 1858~1894)는 일찍이 미국 예일대에서 유학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중퇴하고 돌아온 당대 일본에서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다. 정부 고관 귀족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로크메이칸과 달리, 2층 서양식 건물의 가히다관에는 각종 서양 잡지와 책을 볼 수 있는 무료 도서관, 탁구장과 연회

개정을 위한 외국인 접대나 무도회, 연회장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1883년~1887년까지의 로크메이칸이 존속했던 일본에서는 정식 서양의 음식문화, 연회문화, 복식문화가 상류층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 확산, 유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6 이하 일본 카페 역사는 星田 宏司, 『黎明期における日本珈琲店史』, いなほ書房, 2003을 참조.

장, 트럼프나 장기·바둑의 오락거리를 갖추었다. 이곳은 당대 일본 지식인들에게 환영받았지만 당시 커피 한잔에 1전 5리로 당시 국수 한 그릇의 가격 8리보다 비쌌다. 국수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기호식품인 커피를 마시는 일본인은 극소수여서, 가히다관은 오랫동안 경영난에 시달리다 1892년 무렵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당시 가히다관을 오가던 사람 중에는 후대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외교관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가히다관 이후로 일본에서 점차 다양한 성격의 다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도쿄시 통계연표>에 따르면 1898년 무렵에 찻집(커피점)은 69개소였다고 한다³⁷. 대표적으로 1890년 ‘다이아몬드가베점(ダイヤモンド珈琲店)’이 도쿄 아사쿠사공원에서 개업했다. 커피 한 잔은 3전, 우유 넣은 커피 5전, 홍차 3전 등의 음료뿐 아니라 오믈렛이나 스테이크 등도 함께 파는 양식점에 가까웠지만 가히다관보다 상업적인 공간이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커피 재배를 시도한다거나 부인들도 출입하는 가벼운 찻집(喫茶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1893년에는 아자부(麻布)에는 서양과자와 함께 파는 커피를 함께 파는 후우겟또우(風月堂) 찻집(喫茶室)이 생겼다. 백화점에 입점되는 카페는 1907년 도쿄 니혼바시의 미쯔비시 오복점(三菱呉服店, 미쯔비시 백화점의 전신)에서 처음 보이는데, 내부에 커피와 양과자를 파는 찻집(喫茶室)이 있었다고 한다.

1905년에는 최초로 웨이트리스 즉 여급(女給)이 서빙하는 ‘우롱정

37 坂井 素思, 「コーヒー消費と日本人の嗜好趣味」 『放送大学研究年報』 25, 2008, p.35.

(ウーロン停)’이라는 다방도 나타났다. 일본 근대거리로 유명한 긴자에 개점한 대만식 찻집(喫茶店)으로, 우롱차와 커피를 모두 팔았다. 미인화에 나올법한 미모로 수많은 단골을 자랑한 오나쓰짱(お夏ちゃん)은 여급이라기보다 마담에 가깝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여급이 카페 매상에 큰 역할을 하는 여급형 카페가 출현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메종고노스(メイゾン鴻の巣)의 외관
©奥田家소장



도쿄 니혼바시코야미초(日本橋小網町)에 있는 메종고노스의 기념비 ©이미란

커피 마다, 부인

일본 카페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기가 되는 곳이 ‘메종고노스(メイゾン鴻の巣)’이다. 1910년에 도쿄의 니혼바시(日本橋) 근처에 개업한 메종고노스는 서양요리점이지만 커피도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문예잡지 <스바루(スバル)>에 소속된 일본의 젊은 문필가들과 화가들이 예술과 커피 애호모임인 ‘빵모임(パンの会)’을 매달 이곳에서 열렸다고 한다. 메종고노스에서의 빵모임은 당대 일본 근대문학과 사상가들, 예술가들

이 사교를 위해 즐기는 '살롱'이자 일본 '모던'의 상징이 되었다. 메종고노스 이후 일본에서는 서양요리점을 카페라고도 부르거나 요리점에서 커피를 주요 판매품목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이후 일본에서 서양요리점과 카페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카페 프랭탕(カフェ プランタン)'은 다른 의미에서 일본 카페 역사의 획기였다. 서양화가 마쓰야마 쇼우조우(松山省三)가 1910년에 개업한 이곳은 비어홀이나 밀크홀과는 차별화된 소위 파리풍의 카페로, 일본 유수의 문학가나 화가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젊은 여자가 손님을 접대하는 '여보이(女ボー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여급사(女給士), 여급(女給)을 고용한다는 광고를 종종 내게 된다. 카페 프랭탕(カフェ プランタン)은 여급이 일본의 카페매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 카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1911년 도쿄 긴자에서 개업한 '카페라이온(カフェーライオン)'은 여급과 술을 함께 취급하여, 오늘날의 카바레와 카페의 공동 원조로 '바(Bar)형 카페'로 부를 수 있다. 여기서는 흰 앞치마를 착용한 여급사가 술을 따르는 '미인 급사녀(給仕女)'가 많다는 것이 홍보문구였을 정도로, 카페에 여급의 요소를 강화했다. 또한 카페라이온은 '카페타이가(カフェータイガー)'와 경쟁관계였는데, 1911년에 두 카페 모두 서울에서도 지점을 개업하였다고 한다³⁸. 여급과 술을 제공하는 바형 카페가 국

38 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181~182쪽.

권 침탈 직후부터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카페와 같이 도시민의 휴게음료로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 곳은 단연 '카페 파울리스타(カフェーパウリスタ, CAFE PAULISTA)'이다. 일본에서 커피문화를 대중화시켰다고 평가받는 파울리스타는 미즈노류(水野龍)가 1911년 12월 도쿄 긴자와 요코하마에 합자회사로 시작하여 개업하였다. 상파울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 카페는 창업자가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에 공헌했다 하여 상파울로주정부로부터 커피원두를 1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 것이 개업의 계기가 되었다. 덕분에 당시 주변 카페와 달리 직접 로스팅한 고급 브라질 원두를 사용하여 풍미가 좋았고, 한 잔에 15전가량이던 커피를 도너츠나 샌드위치 포함해서 5전의 가격에 판매하였다. 게다가 당시 메이저신문이던 <지진신보(時事新報)> 사 맞은편에 20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 카페 파울리스타는 더욱 성업하였다. 금장단추를 단 흰 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단정한 보이가 커피를 서빙하고 다양한 서적을 갖추어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당시 출현하기 시작한 바형 카페와는 거리가 있었다. 직업학교나 여학교, 가정방문 등의 행사나 커피 강연도 이어 나가 당시 일반인들에게도 커피를 유행시켜 전국에 20여 곳 넘는 지점을 세울 정도로 카페 붐을 일으켰다. 일본에서 커피가 근대 도시문화의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22년 브라질 원두의 무상공여 기간이 끝나고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파울리스타도 타격을 입어 카페매장사업에서 철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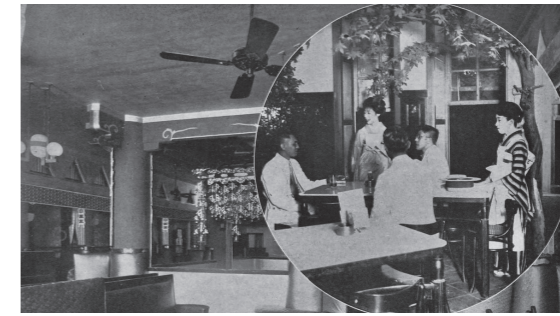
커피 수입과 로스팅 전문으로 사업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전국으로 확대된 지점은 각 개별 카페로 재개점하였다. 이에 따라 간토대지진 이후 일본 특히 도쿄에서 카페 포함 다방·찻집[喫茶室]의 수는 1910년대의 159곳에서 1,000여 곳, 1937년에 3,000여 곳으로 급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커피의 대중화에 기여한 카페 '파울리스타'. 카페 파울리스타는 지난 1970년에 도쿄 긴자 2초메에 재개점하였다. ©이미란

간토대지진으로 일시적인 타격을 입은 일본의 카페가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애로서비스'였다. 카페라이온(カフェライオン)에서와 같이 기존에도 흰 레이스가 달린 앞치마를 입은 여급이 커피나 술을 가져다주는 문화는 있었다. 하지만 손님 옆에 앉아 성적 유희를 제공하는 소위 '애로서비스'가 매출에 큰 역할을 하는 소위 '카페(カフェ)'가 유행한 것은 이 시기부터였다. 원래 바형 카페였던 도쿄

긴자의 카페라이온(カフェライオン)이나 카페타이가(カフェタイガー)도 카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급을 모셔오기 위해 1920년대부터 경쟁이 과열되었다고 한다.



카페 내부 사진은 카페 쿠로네고. 원 안의 사진은 카페 타이가의 손님과 여급
©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전국에서 유행한 애로서비스가 주된 카페들은 전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술과 함께 2층에 공연장을 마련하거나 심지어 개별룸이나 욕조를 갖춘 곳도 등장했다. 특히 오사카(大阪)에서는 '카페 마루타마(カフェ丸玉)', '유니온(ユニオン)', '카페 아카타마(カフェ赤玉)'가 강세였다. 오사카 텐진바시(天神橋)에서 크게 성공한 '아카타마식당(赤玉食堂)'이 카페 아카타마(カフェ赤玉)로 재개업했는데, 이곳은 영업 중에도 여급과 고객이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영법이 화제가 되었다.

고가의 화대를 지급해야 하는 예기(藝妓)를 대신하여 여급의 '애로서비스'가 매출을 견인하는 곳을 편의상 '여급형 카페'로 명명하겠다.

반면, 여급형 카페 이전부터 근대 일본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커피

피·차와 함께 간단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커피하우스·밀크홀·다관·카페·찻집·다방[珈琲店·喫茶店] 등으로 불렀고 카페를 겸한 서양요리점도 있었다. 이러한 곳을 편의상 ‘다방’이라고 분류해보겠다. 모두 커피를 마시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 역사성과 특징이 다른 별개의 공간이었다.

1923년 이전에도 술과 여급이 있는 바(Bar) 형태가 있었지만 대체로 다방류가 많았고 근대지식인들뿐 아니라 도시민들이 즐기는 근대문화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20년대에는 일본 내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특히 1923년 관동대지진을 거치면서 앞에서 본 다양한 형태의 다방은 큰 타격을 입었고, 여급의 애로서비스가 특화되고 술과 공연이 열리는 ‘여급형 카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³⁹. 게다가 1925년 일본 25세 남성은 모두 선거권을 갖게 된 소위 ‘다이쇼테모크라시’의 시기이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0%에서 -5%로 호황과 불황이 급격하게 반복되었고 1929년에는 미국발 경제대공황이 덮쳤다. 남성 중심의 ‘제도적 민주화’는 이룩했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컸고 경기 불안으로 인해 여성과 식민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제력을 가진 남성 중심의 소비문화를 형성하였다. 일본에서 경제력과 근대 지식을 독점한 일본 남성 대중은 고가의 화대를 지불해야

39 카페파우리스타와 같은 카페와 구분하기 위해, 여급이 제공하는 애로서비스와 술을 판매하는 일본에서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유행한 카페를 ‘일본식카페’라고 지칭하겠다. 단 이러한 형태의 카페는 식민지 조선에도 유행하였던 점은 다음 절에서 후술하겠다.

만 향락을 얻을 수 있었던 기존의 예기(藝妓)문화와는 다른, ‘모던’한 애로서비스를 추구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기존의 다방류(가배점·깍다점·다관·커피하우스)가 퇴조하고 애로서비스로 대표되는 여급식 카페가 유행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여급식 카페는 다양한 범죄의 무대로 신문에 등장하거나 가정 파괴와 풍기 문란의 온상으로 근대 신문과 잡지에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1920년대 말부터는 이러한 곳을 아이마이야[曖昧屋, 소형의 비밀 매춘업소]로 분류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1926년 다이쇼일왕[大正天皇]의 사망 즈음부터는 애로서비스를 주로 하는 여급식 카페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었다. 1933년에는 급기야 ‘특수음식점 영업단속 규제’가 내려져, 애로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여급식 카페는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일본식 카페에 대한 반발로 술을 팔거나 애로서비스가 없는 소위 순수한 다방이라는 의미에서 순깍다[純喫茶, 준킷샤, 순다방]가 일본에서 다시 등장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함께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불안, 정치적으로는 군국주의가 확산되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모더니즘·자유주의·개인주의가 퇴조하였다. 국가 전체와 민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고 전인민을 무장해서 일본의 위기를 전쟁으로 해소하자는 군국주의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압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더니즘과 자유주의, 지성과 서구화의 상징이던 커피문화는 점차 쇠퇴한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주도

하는 일본 경제제재와 수출금지조치에 따라 소위 '적국의 음료'인 커피는 수입이 금지되어 커피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커피를 일본 내에서 생산하려고 시도하거나 커피가 아닌 콩류를 볶아서 커피를 대신하는 대용 음료가 보급되지만 커피의 향미를 대신하지 못했다. 여급형 카페든 다방이든 1940년대는 일본의 패망과 함께 카페문화도 퇴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카페문화의 전개과정을 염두에 둔 다음 부산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산에서의 커피문화

부산에서도 당시 서울에서와 같이 다방이나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의해 국권 침탈 직전인 1909년 서울 남대문정거장(현 서울역)에서 찻집(喫茶店: 킷사텐)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⁴⁰. 부산에도 1905년에 부산역(부산정거장)이 개통되었다. 1912년 부산역 안에 식당과 유희실(遊戱室)을 갖춘 철도호텔이 개업했으므로(<매일신보> 1912.7.9.) 그때부터 부산역에 객다점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1915년 부산철도호텔에서 '여보이'의 채용 광고가 있고(<조선시보> 1915.9.8.) 다방으로 추정되는 음료실(飲室)도 보인다(<부산일보> 1915.5.11.). 부산에서 최초로 출현한 카페는 바로 부산역 철도호텔 부속 카페일 가능성이 있다.

40 이길상, 208쪽, 209쪽에는 역사진이 있음. 1909.11.3. <황성신문>



『신편 부산대관』 205쪽에 실린 1934년의 부산스테이션호텔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일제강점기 부산의 다방과 카페에 대해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에 동래군과 부산부(釜山府)를 분리하여, 부산부를 현재의 동구·중구 및 영도구까지만 포함시켰다. 이후 1936년에 기존의 부산부에서 오늘날의 암남(현재 서구)과 서면(현재 부산진구, 남구)까지 포함하여 부산부가 확장되었다. 부산부의 인구는 1914년부터 일본인과 조선인이 1:1의 비율로 양측 모두 증가하다가 1925년부터는 조선인의 비율이 점차 1.5배~2배 정도 많아진다⁴¹. 일본인과 조선인의 비율이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일본인구의 수가 많았던 일제강점기 부산은 문화의 교섭과 혼종이 활발한 경계지대이자 항구라는 특징에 따라 서울

41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한국민족문화』 2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8~19쪽, 표4 참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 카페문화의 영향에 더 민감했을 것이다.

1910년대 중반 무렵 부산에는 여급을 고용하는 카페도 보이는데, '카페에비스'(<부산일보> 1916.1.15.)도 그중 하나이다⁴². 어부와 상인의 수호신이자 갈등을 조정하는 일본의 신의 이름을 딴 카페에비스는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카페에서는 여급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앞서 본 부산철도호텔의 여보이 채용광고는 당시 식민지 부산에서 논란이 되었는데(<조선시보> 1915.9.8.), 부산에서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나, 여급이 있는 카페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급의 존재를 광고에 이용한 카페에비스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한 바형 카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카페 역사에서처럼 부산에서도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찻집이 등장하는데, 서양요리점이자 커피와 디저트를 단독으로 도 제공한 카페로는 1915년에 개점한 미카도(ミカド)가 있었다. 와다나리사쿠(和田奈良作)가 부산의 사이와이마치(幸町, 현 창신동)에 개업하였는데, 원래 1909년에 우매타테신마치(埋立新町, 현 중앙동)에 서양요리점을 개업했으나 폐업하고 1915년에 다시 개업한 카페 겸 식료품업소였다. 당시 식당과 깃다 두 부서로 구성하여 고상하게 운영하였다고 한다⁴³.

42 이길상, 앞의 책, 2021, 2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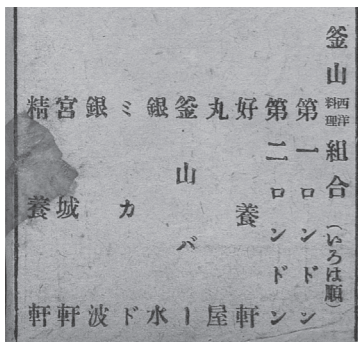
43 김승 양미숙 편역, 김한근 사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편, 『신편 부산대관』, 2010, 602-603쪽. 이 책은 1934년 간행 『新釜山大觀』을 저본으로 하고 1926년 『釜山大觀』을 비교하여 펴낸 책이다.



『신편 부산대관』 603쪽에 실린 1934년의 미카도의 외관과 내부 식당 및 차실[喫茶室] 모습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20년대부터 부산의 신문 광고에는 다리야깃다점, 까모네 등의 카페를 발견할 수 있다. 1923년 부산 다이쇼(大正)공원 안에 개업한 견청다실(見晴茶室, 현 서구청 자리)도⁴⁴ 커피와 차, 간단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다방이었다(<조선시보> 1923.1.1.). 부산역 앞에 있던 경상남도 상품진열장 찻집[喫茶店]도 같은 성격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홍보를 위해 신문에 가격도 공시해두고 있는데, “차 한 잔에 금 2전, 커피·홍차 한 잔 금 7전, 사이드로 25전, 다과1인 16전”이라고 안내되어 있다(<부산일보> 1925.6.27., 7.4.~5.). 1920년대 부산에서 보이는 이러한 다방은 모두 다실·찻집을 표방하고 있다.

44 이길상, 앞의 책, 2021, 214-217쪽.



부산서양요리조합(いるは순)
제일런던
제이런던
코요우켄(好養軒)
마루다마(丸玉)
부산바(釜山バ)
킨스이(銀水)
미카도(ミカド)
긴빠(銀波)
미야기켄(宮城憲)
세이요우켄(精養軒)

부산의 서양요리조합 광고 <경성일보> 1925.4.17.(기사 내용 전재)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1925년 <경성일보> (1925.4.17.)에서는 부산의 서양요리점조합에 가입한 상호명이 보인다. 모두 일본 카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양요리점이자 카페였다. 1925년 단계에 부산의 서양요리점조합에 가입한 업소의 성격에 대해 지면의 한계상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미카도 외에는 대체로 여급의 역할이 강조된 카페로 추정된다. 이들 조합은 무허가 카페의 진입을 저지하고 동업자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출혈, 지나친 여급 스카우트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인 경영자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부산의 서양요리점은 매년 혹은 봄·가을로 '종업원위안회'를 동래온천이나 해운대 등 부산지역의 유명 관광지에서 열곤 했는데(<조선시보> 1924.9.6. <경성일보> 1925.4.17. 등), 단순한 단합대회라기보다 유카타[浴衣]를 입은 여급들이 카퍼레이드를 하는 등 당시 고용된 여급을 홍보하기 위한 호객행위에 가까웠다. 이처럼 1925년 무렵 부산에는 특히 항구와 철도가 이어지는 혼마치[本町, 오늘날의 광복동]에서 나카테도오리

[長手通り, 장수통, 오늘날의 광복동]를 중심으로 소위 여급식 카페가 유행했다. 일본에서 1923년부터 여급이 커피와 술뿐 아니라 애로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여급식 카페가 유행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부산도 일본의 카페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카페 중에서 몇 곳은 1930년대까지 성행했던 곳이다. 1925년 당시 이미 지점까지 거느린 곳은 '카페런던(カフェーロンドン)'이다. 1921년에 개업한 카페런던은 오오쿠라쵸(大倉町) 부산우체국 옆에 있었는데, 개업 당시에는 중국음식점이라고 명시해두었지만 '카페'를 표방하고 있다(<조선시보> 1921.9.27.). 이후 2층으로 증축한 후 열고 미인 여급 12인을 준비해두고 있다거나(<부산일보> 1925.5.24.) 며칠간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당시 부산 카페업계를 주도했다(<조선시보> 1925.5.28.).



『신편 부산대관』 601쪽에 실린 1934년의 아카타마회관 부산총본점의 외관 네온사인 ©부경군대사료연구소

세이요켄(精養軒)의 경우 1920년대까지 부산에서 인지도 있는 서양요리점이자 카페였지만 1930년 전후에 아카타마회관(赤玉會館)에 흡수되었다. 아카타마회관(赤玉會館)은 소위 카페왕이라고 불리는 쿠마노 가메오(熊野龜雄)가 조선에 진출하여 부산역 앞의 사이와이마치(幸町 현 창선동)에 1929년 4월에 개점하였다. 부산 카페 중에서 야간의 네온사인 과 화려한 여급관리로 유명세를 떨치며 1932년에 마산과 통영지점을, 1934년에 대구지점을 개업하였고 1938년에는 남포동에 부산2지점을 개설하였다⁴⁵. 1934년에 부산의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이 125명에 이를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⁴⁶.

1920년대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카페가 더 많았다. 1927년의 부산에서는 50여 개의 정식 카페가 있었지만 무허가 카페도 많았다고 한다(<부산일보> 1927.10.10.). 1930년대에 들어서자 부산에는 카페도 증가했지만 조합에 가입한 카페도 상당히 늘었다. 1932년 부산에서는 32개소의 카페에 여급은 280여 명으로, 경성에 못지않은 규모였다고 한다. 당시 부산의 대표적인 카페로는 앞서 소개한 아카타마세이요켄(赤玉精養軒)과 미카도부산회관 외에도 코요우켄(好養軒)을 들 수 있다. 모두 대형 연회장을 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하는데 열을 올렸

45 <조선신문> 1938.5.13. 및 김승·양미숙 편역, 김한근 사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2010, 301쪽.

46 김승·양미숙 편역, 김한근 사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2010, 600~601쪽

다(<부산일보> 1932.3.15.).

특히 이 시기 완공된 코요우켄(好養軒) 신관은, 부산 카페 중에 부산 최대의 규모였다고 한다. 300평의 4층 서양식 건물에 1층에 테이블이 50개였고 2층과 3층에는 부인과 아이들이 즐기는 깃다부(喫茶部), 3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 4층에는 전망대가 있다고 한다. 33명의 여급은 교장 출신인 지배인이 교육하고 다도, 꽃꽂이, 무용, 서비스 연습 등은 따로 선생을 섭외해서 수련시켰다고 한다(<조선신문> 1932.11.18.).

카페 미카도, 부산



<조선신문> 1932.11.18. “코요우켄(好養軒)의 완성, 15일부터 신관 개점” 기사 일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카페에 고용된 여급은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다. 미카도나 코요우켄과 같이 교육을 받는 고급서비스를 하는 여성들도 있었겠지만, 애로서비스가 주요한 여급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이들 카페의 여급은 당시

소위 예기를 대신하는 화류여성으로 취급되기도 해서, 소형 매춘업 종사자와 같이 취급되기도 하였다(<조선시보> 1926.2.6.). 이러한 소규모 여급식 카페와 아이마이야는 마키노시마[牧の島, 오늘날의 영도]와 미나미하마쵸[南濱町, 오늘날 남포동을 중심으로 900개소라고 하여 부산이 향락과 매춘의 도시라고까지 비난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영도의 대포포 일대는 조선소가 밀집한 지역이고 남포동은 수많은 여객과 선원이 드나드는 곳으로 이들을 겨냥한 접객업소가 많았고 그중에서 애로서비스를 하는 일본식 카페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카페와 다방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단연 오늘날의 동광동과 광복동 일대였다. 당시 부산에서 손꼽히는 카페였던 코요우켄이나 카페런던 등은 오오쿠라쵸[大倉町, 오늘날의 중앙동, 동광동 일대] 즉 부산역(부산정거장)과 제1부두, 세관 및 우체국이 모여 있는 오늘날의 중앙동과 동광동 일대에 있었다. 코요우켄, 아카다마세이요켄, 미카도 부산회관 등은 오늘날의 광복동 패션거리부터 국제시장까지로 뻗은 나가테도오리에 있었다. 이 거리는 과거 초량왜관의 대관가(代官家) 일대에 흐르던 사쿠라가와(櫻川, 또는 中川)를 1880년대 중반에 복개한 후 정비한 신작로였다. 아래 그림은 1939년 부산의 대표적인 카페와 다방(喫茶店)을 표시한 지도인데, 여기서도 일제강점기 부산의 카페와 다방의 위치는 오늘날의 광복동과 부평동에 모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지도의 위치를 보면, 일제강점기 부산에 있었던 카페와 다방

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광복동일대는 당시 부두와 부산역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행정관청인 부산부청과 부산경찰서, 부산우체국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한반도나 유라시아대륙을 향할 때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만나는 부산을 거쳐서 이동했으므로, 이곳은 일본과 한반도를 오고가는 일본인들로 붐볐다. 특히 나가테도오리는 당시 일제식민통치를 위한 기관과 각종 은행, 일본인의 상점과 기업이 들어섰고 인력거와 자동차가 다니는 신작로였다. 상점과 노점이 하나둘씩 들어섰고 의복류를 파는 오복점, 각종 생활 잡화점, 신발점 등 다양한 상품이 진열된 가게가 가로수와 함께 늘어섰다. 이들 지역은 당시 조선으로 오는 수많은 일본인이나 부산에서 식민통치나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 부산의 다방과 카페는 바로 이들이 주 고객이었던 것이다.



『부산안내도(釜山案内圖)』(1939년)에 표시된 다방[喫茶店] 및 카페겸 서양요리점 (사진 속의 흰 점)
©부경근대사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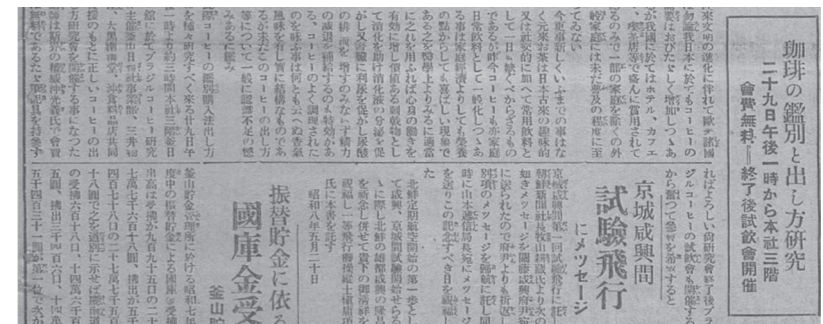
1926년 12월 다이쇼일왕의 사망 이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애로서비스를 하는 카페나 접객업소에 대한 풍기 단속이 시작되었다. 특히 부산경찰서를 중심으로 카페에 대한 풍기단속 기사가 간헐적으로 확인되는데(<조선신문> 1929.11.6.), 표면적으로는 여급형 카페의 향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찰서가 주도하는 풍기 단속은 점차 애로서비스와 관련 없는 순수 다방에도 확산되었다. 당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러 간 사람은 입구에서 이름과 주소, 나이, 직업과 날인을 요구받기도 하였다고 한다⁴⁷. 만담의 일부로 소개된 이야기지만 그 무렵 일본 내에서 점차 다이쇼데모크라시시대의 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식민지 지식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한편 1920년대부터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커피에 대한 관심과 소비도 점차 증가하였다. 전술하였듯이 1915년에 개업한 미카도는 카페일 뿐 아니라 서양식료품도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조선요리제법』 1924년(4판)까지는 커피 타는 법이 보이지 않지만 1931년(5판)부터는 소개되기 시작했다. 주로 3인용의 커피는 커피 6티스푼, 물 3홉반, 크림 1스푼, 각설탕 6개로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그 외의 요리법 소개에서도 조선에서 유행한 커피는 주로 크림과 설탕을 넣어 열게 마시도록 안내되어 있었다⁴⁸.

47 이길상, 앞의 책, 2021, 226쪽.

48 이은희, 「근대 한국제당업과 설탕 소비문화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13~314쪽.

당시 부산의 신문에서는 커피가 영약이라고 소개하는 기사도 점차 등장하였다(<부산일보> 1928.5.28.). 심지어 부산에서는 1933년 <부산일보> 본사 3층에서 커피감별법과 구매법, 시음회, 강습회가 열렸다. 이는 한국 최초로 확인되는 커피강습회로 서울에서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한다⁴⁹. 당시 이 행사는 부산에 있던 브라질커피연구회라는 단체가 주최하고 부산일보사 사업부, 미쯔이(三井)물산, 다이코구난카이도(大黒南海堂), 오키(沖)식료품점이 공동 후원한 행사로, 점차 커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춘 해외식료품업체가 후원한 행사였다. 강습 내용 중에 '구매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밀수사건으로 종종 떠들썩하던 부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식으로 수입한 원두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사로, 부산이 항구이기 때문에 가지는 일제강점기 커피 문화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이다.



<부산일보> 1928.5.28. "가배(珈琲)의 감별과 내는 방법 연구. 29일 오후 1시부터 본사 3층. 회비 무료 = 종료 후 시음회 개최" ©부산일보

49 이길상, 앞의 책, 2021, 262쪽.

부산에서 커피 애호가들의 강습회가 개최되는 한편, 경제력을 가진 일본 남성이 주 고객이던 여급형 카페와 달리 부산에서도 순수 다방 [純喫茶, 준킷사]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광복동의 에텐다방과 대청동의 릴리다방이 그것이다. 에텐다방은 동아일보 기사를 하던 강대홍씨가 사서 제일다방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태평양전쟁 직후까지 경영했다고 한다. 여류작가 김말봉씨가 연재소설의 삽화를 한무숙씨에게 에텐다방에서 맡겼다는 시기가 1935년 무렵이기 때문에, 에텐다방도 그 시기에는 적어도 영업 중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릴리다방은 1940년대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귀국한 김종식, 양달식, 임홍근, 김윤민, 김원명, 김봉자 등 당대 화가가 모여 미술 이론을 토론하고 고민하던 장소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건너온 신여성을 마담으로 고용했는데, 젊은 화가들이 검은 드레스를 차려입은 마담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앞다투어 드나들었다고 한다⁵⁰. 이처럼 서울에서의 '카카듀'나 '금강산'과 같이⁵¹ 부산에서도 조선인 지식인들이 문화공간으로 즐기는 다방이 출현하였다는 점은, 드디어 부산에서 주 고객층이 조선인인 카페와 다방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1920년대에 확산된 부산의 다방과 카페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점에 이르고 대중들에게도 커피문화가 파급되고 있었지

50 강동수 외, 『추억을 마시다 공간에 스며들다 부산의 다방』 부산문화재단, 호밀밭, 2018, 28~29쪽, 44쪽.

51 이길상, 앞의 책, 2021, 231쪽.

만, 1930년대 후반부터 부산의 커피문화는 점차 쇠퇴 국면을 맞이한다. 1929년 뉴욕발 세계대공황에 따른 경제위기와 도시·농촌 간의 격차는 사회주의층이었던 도시임금노동자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다. 당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나 아시아를 침략하여 불황을 해소하자는 군부 우익들의 주장에 대응은 이를 묵인했고 이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위협받았다. 특히 1936년 일본에서는 2·26쿠데타에서 소위 통제파가 승리하며 일본사회 전체가 군국주의에 물들어갔다. 군국주의는 군사력 강화에 따른 대외팽창만이 살길이고 모든 국민과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획일화된 군사 체제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나 민주주의보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했고,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이성과 지성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카페나 다방에서 여급의 애로서비스를 즐기거나 자유와 예술을 논한다는 것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대동아로 경영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눈앞에 둔 대일본제국의 구성원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부산의 카페와 양식당을 겸한 서양요리점 조합에 가입한 곳은 20개소, 여급은 240~250명으로 전하고 있다(<조선신문> 1936.5.7.). 1936년 행정개편으로 부산부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감안하면, 4년 전(32개소 280여 명)보다 조합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종업원 위안대회를 개최하여 30여 대 차로 카페레이드를 하고 공설운동장에 들어가 부산경찰서장 대리와 조합장의 참석 아래 근속 표창, 운동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안

대회도 1938년이 되면 국가초비상시의 정신총동원과 시국인식이 강조되어 궁성요배나 유명목념, 부산서장의 훈사와 축사 등으로 축소된다(<조선시보> 1938.1.17.).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커피와 설탕의 수급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1938년 3월부터 커피 가격이 통제되어 비싸게 팔 경우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이 예고되었다. 본격적으로 전시통제경제체제로 전환되어 ‘명량과 향락’의 카페문화는 정부와 언론에 의해 통제와 정화가 요구되었다(<조선신문> 1938.5.12.).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신규영업 허가가 제한⁵²되기도 했고 대형 카페의 경우 몇 개의 지점과 군소카페를 통폐합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의 텐카쓰식당(天勝食堂)이 라이라이(來來) 카페를 매수 통제하고, 카페조합장 쿠마노(熊野)가 코우신정(共進亭) 및 마사시식당(當士食堂)을 매수통제하는 동시에 남포동의 카페런던을 매수개조해서 11일 재개업한다고 하였다. 1939년에는 ‘유흥음식점세령’에 따라 카페도 유흥음식세를 내게 되었다⁵³. 군국주의 일본정부에게는 커피수요와 카페를 통제하는 동시에 세수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었지만 부산의 카페뿐 아니라 전국 커피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였다.

1930년대 말부터 신문에서는 커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커피의 유해성에 대해 종종 보도되었고 마른 검은깨나 현미, 검정콩을 이용한

52 이길상, 앞의 책, 2021, 279~280쪽.

53 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189쪽.

대용커피도 소개되기 시작하였다⁵⁴.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소위 ‘적국음료(敵國飲料)’인 커피는 수입이 금지되어 더욱 커피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업체명에 영어가 금지되었고 영어 레코드나 감상적인 음악도 틀 수 없었으며 심지어 군가를 들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⁵⁵.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커피업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위할 수 없었다. 경남 조합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일본 군국주의 정부의 시찰을 수용하여 원래 한 잔에 25전하던 커피를 18전으로 내리고 국가가 제시한 새 공정가격을 따르기로 결정할 뿐이었다(<매일신보> 1940.11.28.). 1941년 부산의 깍다점 조합장이 경질되고(<부산일보> 1941.11.25.) 커피 배급이 막히자 일본정부는 소위 유사커피 또는 국산커피 유통을 장려하고 함남의 대두로 커피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원산에 세우기도 하였으나, 커피에 대한 갈증만 키울 뿐이었다.

일제 패망을 앞둔 1944년 1월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시 조합에 가입 카페를 절반으로 통합 정리되었다. 당시 ‘화양(和洋)요리옥조합(카페업자)’에 가입한 업소는 14곳이었다(<부산일보> 1944.1.17.). 1932년에는 32개소였던 조합 가입 카페는 절반도 남지 않았던 것이다. 신문의 논조는 부산의 유흥거리가 줄어들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 직전의 암울한 부산 카페문화의 마지막 모습

54 김시현·윤여태, 앞의 책, 2021, 255쪽.

55 이길상, 앞의 책, 2021, 281쪽.

이었다.

일제강점기의 부산은 일본인 거주자의 비율이 높고 일본의 대륙 진출의 통로로 인식되어 수많은 일본인들이 오고가던 곳이었다. 특히 오늘날의 광복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의 카페와 다방문화가 유입되었고 서양요리점과 결합된 카페나 여급식 카페가 모여있어, 서울 못지않게 카페와 다방이 유행했다. 1930년대 부산에서 점차 커피가 대중화되고 부산의 지식인들이 즐기는 다방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말부터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따라 커피 산업 전체가 타격받기 시작하였다. 앞서 보았던 1962년 <부산일보>(1962.11.10.)에서 “일제 때 부산에 다방은 … 너댓 곳”에 불과했다는 회상은 아마도 1940년대부터 일제 패망까지의 기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확산된 부산의 커피문화는 군국주의 일본의 패망과 함께 저물어갔다.

2

다방의 시대(1950~60년대)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연합국 중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남한사회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다시금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전시 일본이 주도한 통제정책 하에서 커피원두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된 이후 한동안 대체커피 또는 국산커피 등으로 아쉬움을 달래던 조선인들은 해방 직후 미군 PX로부터 인스턴트커피가 흘러들어오자 다시 커피를 찾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다방 특히 부산의 다방과 커피문화에 대해 이미 많은 글이 있다. 공통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다방이 몇 개 없었고 6·25전쟁을 계기로 서울에서 각계 예술인들이 부산으로 피란을 오면서 번창하기 시작하였으며 1953년 환도 이후 다방이 급감 또는 쇠퇴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신문에서 묘사하고 있던 부산의 다방은 훨씬 다채롭고 특징이 분명하다. 좌우대립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해방공간과 분단,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의 굵직한 현대사의 장면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과 그들의 장소는 영향을 받았다. 이 절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에서 6·25전쟁 시기, 4·19혁명 직후의 통제에서 해방되던 시기와, 5·16군사쿠데타부터 1960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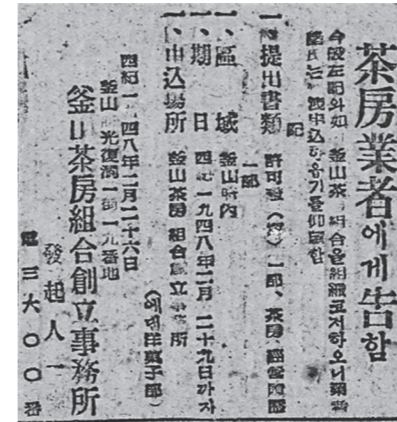
다방에 위생개념 도입과 단속이 이어지던 시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부산 다방의 확산 요인

1948년 1월 당시 부산에서 다방은 관내 20여 곳(<부산신문> 1948.1.21.)이었는데, 1949년 8월에는 부산부에 등록된 다방업소가 39개소에 이르렀다고 한다(<부산일보> 1949.8.15.). 오랜 기간 일본 군국주의 정부의 통제정책이 사라지자 해방 직후부터 붓물처럼 다방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해방 직후 부산의 다방은 1946년 <부산신문>(전 부산일보)의 창간 직후부터 1948년까지 실린 광고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남포동 ‘천사다방’부터 광복동의 ‘에덴다방’, ‘무궁화다방’, 창선동의 ‘늘봄다방’, ‘백양다방’, ‘문화장’, ‘릴리다방’, ‘오륙도’, ‘고려다방’, ‘세동무’, ‘황가가배관’ 등이 해방 직후까지 살아남았거나 개업한 부산의 다방들이었다. 1948년 1월에는 광복동 에덴다방(에텐양과자부)을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그해 2월 부산다방조합이 창립되었다(<민주중보> 1948.2.27.).

한국전쟁은 민족의 비극이지만 전국으로 몰려든 피란민 특히 문화계 지식인들로 인해 부산 다방업계에서는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 1950년 12월 광복동과 남포동의 찻집거리를 중심으로 다방이 점차 증가하여, 총 64개소 중 허가받은 다방은 34개소, 무허가는 30개소였다고 한다. 부산이 소위 피란수도가 되면서 전국 각지의 미술계, 음악계, 문학



다방업자에게 고함

금번 좌기와 같이 부산다방조합을 조직코저하오니 업자 제씨는 속히 신청하옵기를 요망함

기(記)
1. 제출서류 허가증(?) 1부, 다방경영이력 1부
1. 구역 부산부내
1. 기일 서기 1948년 11월 29일까지
1. 신청장소 부산다방조합창립사무소(에텐양과자부)
서기 1948년 2월 26일
부산광복동1가19번지
부산다방조합창립사무소 발기인
電 三六〇番

1948년 부산지역 다방 조합원 모집 공고(『민주중보』 1948.2.27.)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계피 마시다, 부산

계, 언론인 등이 몰려들었고, 이들의 불안과 허무를 흡수하는 지식인들의 사랑방으로 다방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자들은 당시 신문기사(<경향신문> 1953.9.14.)에 근거하여 1953년 7월 환도 이후에 부산의 다방이 급감하였다고 한다⁵⁶. 이는 서울 중심주의에 따른 편견이고 오해이다. 실제로 환도 이후 부산의 다방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1954년에는 200여 곳(<부산일보> 1954.6.7.), 1956년에는 230여 곳(<부산일보> 1956.12.9.), 1960년 초입에 부산 시내에는 500여 다방이 있었다고 전한다(<부산일보> 1960.7.17.).

56 강동수 외, 『추억을 마시다 공간에 스며들다 부산의 다방』 부산문화재단, 호밀밭, 2018, 28~29쪽, 34쪽.

이와 같이 해방 직후부터 60년대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부산의 다방업계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 이후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농촌에서 쓰는 호미나 팽이 등의 농기구는 수백 년을 두고 그대로인데 해방 후에 퍼지기 시작한 다방은 웬만한 면소재지에도 다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1961.6.3.)처럼 전반적인 사회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유독 부산에서 약 10년 만에 다방업체가 25배가량 급증한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신문기사에 나타난 부산지역 다방이 확산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1950년대 말까지 커피 입수 방법이 대부분 PX물자와 밀수에 의해서였는데, 항구도시 부산은 커피 입수가 다른 지역보다 손쉬웠기 때문이었다. 1948년부터 부산항에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 오는 각국 무역선의 입항 소식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무역과 통상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보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정상적인 통상에 의한 경제회복은 아직 요원했다.

특히 해방 직후부터 원조와 구호품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의 식료품이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 담배, 커피, 양주, 과자, 화장품, 카메라, 시계 등의 다양하고 막대한 양의 미군 PX(Post Exchange, 미국 군대 내 매점) 물자가 불법적인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 범람했다(<동아일보> 1959.6.21.). 미군에게는 과립형 인스턴트커피가 넘칠 정도로 배급되었는데, 1950년대 말까지도 미군들이나 미군에 출입가능한 한국인들의 대규모 빼돌리기(암생이질)나 미군 수송선이 바다에 짐

짜를 던졌다가 몰래 건져 올리거나, 트럭 단위로 이동할 때 빼돌리는 방법⁵⁷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한미 간의 행정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PX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물자는 한국의 물가와 식품산업계에 큰 충격이었다⁵⁸.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입수된 커피가 시중 다방에 유통되었다고 한다⁵⁹.

뿐만 아니라 부산은 1948년 이전까지도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본인과 조선에 귀환하는 해외 동포들의 왕래가 잦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원들을 통한 밀수도 끊이지 않았다. 상류층들이 주로 쓰는 미국제 가방이나 양주, 화장품과 커피, 일본제 도기 등의 사치품이 밀수 대상이었다(<부산일보> 1949.10.15.). 6.25 전쟁기에는 더욱 심해져서,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밀수품에 대해 재무부에서는 부산의 시장을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차압·납세토록 하였는데, 거기에는 커피와 코코아, 우롱차 등의 차 종류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부산일보> 1952.7.24.). “43억환 어치의 커피 원료도 거의 전부가 밀수로 들여다쓰고 있는 것”(<부산일보> 1960.7.17.)이라는 기사로 볼 때 1960년대까지도 부산 다방에서 커피의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커피 수급불안 문제는 커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

57 이은희,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2, 302쪽, 이길상 3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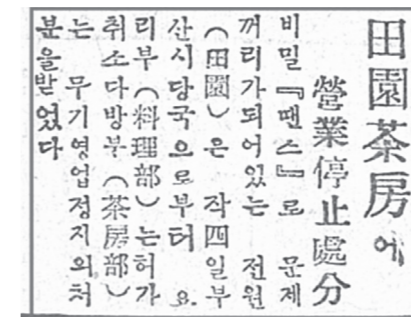
58 이은희,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2, 303쪽.

59 이길상, 311쪽.

방 직후에는 한 잔에 50원 정도였던 부산의 커피 한 잔은 점점 가격이 올라 1947년에는 60원에서 80원으로, 1949년에는 120원에서 150원가량을 폭등하였다. 이는 당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소위 “다방은 문화인의 오아시스로서 주로 박봉에 허덕이는 사라리맨들이 사랑하고 이용”했던 해방기 지식인들의 요구로 커피에 대해 협정가격제가 제안되기도 했다(<부산일보> 1949.3.23.). 업무상 취재와 연락이 용이하고, 외부인과 쉽게 만날 장소가 필요한 기자들이 주요고객층이었기 때문에 다방의 커피 가격문제는 언론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 결국 6·25전쟁기를 거치면서 1954년부터는 커피 한 잔에 41환이라는 행정가격제가 실시되지만 1950~60년대 내내 커피가격의 인상조짐이나 공정가격을 위반한 사례가 기자들에 의해 거의 매년 지적되었다.

둘째, 1950~60년대 내내 지적되며 문제시되고 있는 특징은 바로 부산의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이었다. 그중 ‘왜색’이 잔존하고 있는 점이 가장 오랫동안 지적받았다(<부산일보> 1949.7.22. 1950.4.20., 1950.6.10.등등). 당시 부산에서는 전차나 다방, 심지어 관청에서도 일본어를 쓰는 일이 많았다. 1960년대까지도 일본 음반이나 잡지가 유통되어(<부산일보> 1961.6.20.) 심지어 “시내 각 다방에서는 거의 종일토록 일본산 레코드가 돌고 있어 흡사, 시모노세끼쫄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느낌”(<부산일보> 1960.7.17.)이라는 신문지상의 지적이 낫설지 않았다. 아무리 해방 직후에 국민들이 가진 민족의식과 일본문화에 대한 반

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식으로 변안된 근대문화를 식민지 조선에 주입받았던 관행을 끊기 어려웠다. 신문지상에서 과격한 논조로 성토되어도 1960년대까지도 소위 ‘왜색’이 근절되지 못한 시대였다.



▲ 비밀 댄스파티를 열었던 전원다방을 적발, 영업정지처분 <산업신문> 1950.5.5.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 “사진은 범람하는 일본잡지 광복동 다방골목에서” <부산일보> 1955.6.15. ©부산일보

이러한 점은 서울이나 마산과 같은 다른 지역 다방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문제였지만, 부산에서 특히 “타도시에 비해 왜색 철저히 불식되지 않은”(<부산일보> 1947.7.22.) 이유는 부산에서는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항구도시였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해방 후에도 일제강점기처럼 일본에 의해 문화적으로 종속될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특히 부산을 통해 잔존하는 일본문화나 일본으로부터의 문화적 자극을 언

론에서 계속 경계했지만, 실제 부산은 일본뿐 아니라 해방 직후에 전반적으로 외국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다.

전쟁 직전에도 부산역 앞의 전원다방에서 40여 명의 남녀가 댄스 파티를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부산일보> 1950.5.4.), 특히 부산이 피란수도였을 시기에 이러한 사례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어린 구두담이 소년이 “헬로, 슈산하는 그들 특유의 영어회화를 미국인이 자주 출입하는 댄스홀, PX, 다방, 위안소 등에서 주고받는 풍경은 오직 이곳(필자 주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일종의 기현상”(<부산일보> 1951.2.3.)이라거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복동 다방거리에서 “마카오 양복에 향내가 풀신풀신 이래서 썩은 내 나는 부뚫가라는 욕을”(<부산일보> 1951.10.21.) 먹었다. 이 시기의 댄스홀과 카바레, ㅼ 또한 일제강점기의 그것과는 달리 “UN군을 위안하기 위해 허용”한 것이지만 부산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단속 대상이 되었다(<부산일보> 1954.05.15.).

이와 같이 부산의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 눈에 띈 정도였다. 6.25 전쟁 발발 한 달 전인 1950년 5월 부산 영사 벨리는 부산이 서울보다 자연풍경이 좋고, 부산 시내 다방과 동래의 요정이 서울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워, 상업도시로서의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한 점을 자랑스러운 논조로 기사화하였다(<부산일보> 1950.5.24.). 부산에서 왜색을 포함한 외국문화를 평가할 때, 왜색은 문제시하지만 미국인의 호평을 강조하던, 과거 가난한 권위주의 정부나 국민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외국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기화해서 오랫동안

안 즐기는 부산의 개방적 문화는 전쟁 중인 극빈국이라는 점 때문에 당시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자체로 부산만의 독특한 커피문화가 형성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바로 이러한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상업과 항구도시라는 점 때문에 부산으로 경제적 독립을 지향한 여성들이 유입되었다. 일본에 의해 유입되었던 공창제도가 1948년에 폐지되면서 고급요정과 ㅼ, 카페와 댄스홀에서의 기생, 매춘행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부산신문> 1948.12.24.). 이로 인해 기존의 화류계 여성들이 남포동과 영도 일대의 사창가로 흘러 들어간 병폐도 있었지만, 과거 일제강점기에 애로서비스를 제공하던 여급이 이 시기부터 ‘마담’과 ‘레지’로 변모되었다. 해방기 다방의 문화가 일제강점기와 완전한 단절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1948년 이후 언론에 거론되는 다방의 여종업원에 대한 호칭이 여급에서 레지로 바뀌고 애로서비스에서 차츰 멀어졌다.

이 시기 레지에 대한 사회인식은 여성직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일제강점기 여급의 연장에서 성 상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불가능하던 당시 분위기에서 다방의 레지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부산일보> 1949.8.23.).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부산의 다방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다방 레지는 연애나 짓곳은 농짓거리의 대상이자, 부침 많던 한국 현대사를 겪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풀이 대상으로 폭력이나 살해, 낙태, 성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레지들

은 부산뿐 아니라 인근 농어촌지역에서 상경했거나 전쟁을 피해 닦선 부산에 정착하여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을 성적 상품으로 대하며 위선적이고 체면치레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상술을 펼치고 다방주인이나 마담의 압박에도 손님들과 연애하는 등 대도시 부산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낸 입체적인 인물군상들이었다.

이러한 부산의 지역적 특징은 6·25 전쟁으로 인해 피란민들을 수용하게 되면서 더욱 도드라지게 된다. 부산은 피란민 수용 능력이 7만이었지만 이를 훨씬 웃돌아 1952년에는 100만의 피란민들을 어떻게든 수용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찻집거리(다방거리)로 유명했던 광복동과 남포동에도 미군과 피란민들이 헤매고 있었고, 용두산, 북병산, 아미산 등의 산등성이에는 미군의 통조림과 나무상자나 종이상자를 엮은 판자집들로 메워졌다. 다방에서 전쟁 소식을 듣던 이들은 “다방에서 좌담하는 분자”들로 “한국은 아직 비상사태”가 안되어 있다고 비난받기도 했다(<부산일보> 1950.7.7.).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모여든 지식인들은 “실로 한반도 최남단인 배수의 거리, 사치의 누항, 소요의 항구, 낭만의 부듯가인 항도부산의 어둑 침침한 다실”에서 앉아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방에서 전쟁이라는 비극과 상처,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어 나갔다.

음악계에서는 음악감상실의 역할을 했던 다방으로 부산의 에텐, 문

화장, 카라방, 춘추가 거론되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배도순이 운영했다는 문화장에서는 ‘명곡 레코드 감상회’라는 라는 문화행사가 기획되어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문학계와 미술계에서는 주로 금잔디, 휘가로, 녹원, 칠성, 아담, 금강, 실로암다방 등에서 미술전람회나 시화전, 문인들의 다양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특히 김동리는 이 시기에 대해 『밀다원시대』라는 소설을 통해 당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불안과 방황을 그려내었다. 아래 사진은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이 복원한 1953년 광복로 일대의 주요 다방 분포도이다.

1953년 광복로 일대 다방과 주요 시설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이와 같이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전쟁이라는 비극을 앓아내고 있던 부산의 다방은 일제강점기대의 카페시대와 전혀 다른 경험을 흡수할 수 있었다. 환도 이후에 이들은 각자 그들의 터전 돌아갔지만, 전쟁 시기 문화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산의 다방은 지역 예술가들을 수용하면서 여전히 시화전과 전시회, 미술전이 열렸다. 환도 이후의 행사에서도 이주홍이나 윤이상, 전혁림과 같은 당대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인들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였다. 또한 전쟁 당시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복합 문화행사가 기획되었는데, 남포동 신신다방에서 “슈만의 밤”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거나(1956.8.1.) “상송과 각테일의 밤”(〈부산일보〉 1963.12.18.)이나 “모던재즈의 밤”(〈부산일보〉 1963.12.19.)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문학, 음악, 영화, 미술, 연극 그리고 각테일이 있는 송년회”가 다촌다방에서 개최되어 재즈감상과 해설, 영화와 문학에 대한 강연, 모노드라마 상연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부산일보〉 1964.12.26.). 소위 밀다원의 시대를 거치면서 문화회관이나 연회장소가 부족했던 부산에서 다방은 적극적인 문화행사의 장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사치, 부산 다방에 대한 규제와 대응

다방은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극빈국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지식인들에게 사치스럽지만 절실한 “문화인의 오아시스”였다(〈부산일보〉 1949.9.23.). 식사도 거를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 후 다방에 들

러 차를 마시고 레코드를 듣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매혹적인 해방감을 주는 휴식이었다(〈부산일보〉1949.11.6.). 전쟁 시기 피란수도 부산의 다방은 국가총력전에 대비해 폐쇄된다는 풍문도 있었지만(〈부산일보〉 1950.8.12.), 피란 온 문화예술계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창작 공간이었고, 문화사랑방이자 출판사나 언론 및 여러 정치단체의 사무실이나 편집실이었다⁶⁰. 1960년대에는 부산항의 선박들에 대한 급수·급유나 항만 안에서의 상행위가 가능한 허가업자들의 사무실 연락처도 대부분 다방이었다(〈부산일보〉 1961.4.4.).

하지만 하루 벌어 살기 바빴던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다방은 사치의 공간이었다. 다방서 커피를 즐기던 젊은이들은 “공연한 소일을 하며 심포니 9번이나 차이코프스키- 니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보고는 담배처럼 불을 태우는 여가”(〈부산일보〉1951.4.12.)라고 비난받았다. 1951년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여, 당시 부두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3,000원이었고 국밥 한 그릇 800원이던 시절에, 다방에서 커피 한잔은 1,300원이나 하던 시절(〈부산일보〉 1951.9.13.)이었다. 1950년대 다방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계층에 따라 상반되었던 것이다.

전쟁 중에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고위층이 주로 가는 요정, 음식점, 다방 등지에 의무적으로 국채보조권을 소화시키도록 했다(〈부산일보〉 1951.4.24.). 하지만 커피가격에 함께 책정되어 있는 국

60 이순욱 외, 앞의 책 2018, 52~53쪽.

채보조권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쓰는 다방이 있었다.(<부산일보> 1952.9.28.). 국채보조권 교부를 위해 부산 다방의 현황이 조사되면서 지중해, 분홍신, 루비 등의 무허가 다방이 적발되기도 하였다(<부산일보> 1952.12.16.). 이러한 무허가 업소에 대해 피관정부에서는 기한 내에 영업신고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피란 온 전재민들의 거주공간으로 내줘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부산일보> 1953.1.9.).

195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방에서 쉽게 왜색 문화를 접할 수 있다거나, 커피값이 비싸다거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내에 다방에 출입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숙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불과했을 뿐, 직접 당국이 제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53년 특히 환도가 결정된 후부터 부산의 다방은 정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세관의 적극적인 규제 대상이 되었다. 부산시청에서는 부산의 다방업자를 소집하여 시장이 시내 각 다방을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다방 장식에 전시적 분위기를 더하며 특히 모든 레지에게 전시복을 입히겠다는 기상천외한 정책도 나왔다(<부산일보> 1953.6.24.).

게다가 1953년 연말부터 물 부족으로 인한 위생문제와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전기사용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력이 부족한 이유는 병원이나 학교, 생산공장에 가야 할 전기가 다방, 요리집, 댄스홀 등의 각종 유흥시설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지탄받았다. 특히 그 해 11월 27일 부산역 대화재 이후 부산역, 우체국과 같은 국가 기관뿐 아니라 항공사, 운수회사, 신문사, 병원과 여관, 자동차, 환우장을 비롯한 5개

다방 등이 소실되었고(<부산일보>1953.11.29.) 전력수급에 차질이 더해졌다. 이에 정부는 전기수요자증을 발급하여 심야까지 전기를 사용하려면 이 수요자증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였다. 당연히 다방은 전기수요자증 발급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수요자증 없는 전기를 사용한 다방을 53개소나 적발하여 벌금을 매겼지만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무단동력을 설치해서 무리하게 전기를 사용한 다방은 신문에서 단골 기사였다(1955.5.30.).

1954년부터 부산의 다방은 물 부족으로 인해 설거지에 소홀하거나 해충을 관리하지 못해 화재에 올랐다.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다방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소독약과 살충제를 직접 구해서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위생문제가 제기되어 다방업계를 긴장하게 했다.

1953년 화폐개혁과 1954년 커피 행정가격제가 실시되어 전국 다방의 커피가격은 41환으로 고정되었다(<부산일보> 1954.5.15.). 이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 다방에 타격을 입혔다. 전기 사용과 커피가격 규제에 대한 다방업계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산다방협회 이사장이 횡령혐의로 조사한 적도 있었다(<부산일보> 1954.7.10.).

이러한 정부의 커피가격 규제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먼저 부산다방조합에서 먼저 45환에서 65환으로 기습 인상하였다. 이에 부산 경찰에서는 독단적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파는 다방을 단속하기로 하였다(<부산일보> 1954.10.13.). 부산에서의 가격 인상 소식에 마산다방협회나 서울다방협회와 같은 지역 다방협회나 조합에서도 행정가격제에 대한

반발로 동맹휴업하고 40~50환하던 커피 한 잔 가격을 60환 또는 65환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부산일보> 1954.10.25., 10.28.). 하지만 다방업계의 이러한 반항은 국민여론의 못매를 맞고 다시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 돌아갔던 것 같다. 대신 우유나 설탕, 계란을 추가한 특제 커피의 가격을 100~150환가량 붙여 팔거나⁶¹, 여름에 한해서 아이스크리나 각종 주스, 칼피스 등의 가격을 한 잔에 100환에서 150환으로 책정하여 대응하였다. 당시 부산에 있었던 경남도청에서는 집객영업요금 인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커피·홍차·우유 등의 아이스제품도 100~120환으로 가격을 고정시키기도 했지만(<부산일보> 1955.8.4.) 잘 지켜지지 않았다.

나아가 1955년 12월부터는 부산 시내 다방업자들은 차 한 잔에 국채와 각종 세금을 덧붙여 커피·홍차·밀크 한 잔 가격을 68환 50전으로, 밀크커피·레몬티·코코아는 118환으로 인상했다. 이 가격은 68환 50전에서 찻값 35환 + 특별행위세 10환 + 유흥음식세 3환50전 + 국채 20환을 합친 가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커피 한 잔 가격 70환을 내더라도 당시 부산의 일부 다방에서는 거스름돈 50전을 잔돈으로 구비해두지 않거나 70환을 레지에게 내면 신사 체면에 거스름돈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였다고 한다(<부산일보> 1955.12.2.). 또한 일부 다방에서는 국채 대금이 포함된 찻값을 받아놓고도 국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부산일보> 1955.12.6.).

61 이길상, 313쪽 및 <부산일보> 1955.11.16.



영덕리 가격표 사기수단 쓰는 다방 <동아일보> 1955.12.6.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커피 마다, 부산

결국 부산시에서는 실시 한 달만인 1956년 1월 5일부터 커피 한 잔에 20환씩 첨가한 국채를 10환으로 인하하고 나머지 10환은 국채보조권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찻값은 한잔에 60환이 되었지만 경상남도의 전체 국채소화량 중 부산시는 15%밖에 국채를 소화시키지 못하였다고 한다(<부산일보> 1956.2.11.). 4월부터는 다방과 극장, 담배소매점에서 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선 다방에서는 국채를 다시 20환으로 인상된 것처럼 올리고 커피 한 잔에 70환으로 올려받는 다방도 나타났다(<부산일보> 1956.3.28., 4.23.). 이로 인해 1957년부터 사실상 행정가격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1957년에는 남포동이나 광복동에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100환 이상이 되는 다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12월부터 다방음료의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찻값은 시장논리에 맡겨졌다.

가난한 나라에서 위생이나 전기사용 규제는 당시 필요한 정부활동

이다. 그러나 국내나 특별세를 찾값에 부과하거나 행정가격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정책이었다. 당연히 각종 편법이 난무했고 잘 지켜지지 않아 행정능력을 낭비하고 혼선만을 야기했다. 하지만 당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다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하여 세수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다방을 즐기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정부 규제의 결과 부산의 다방은 1954년에 500여 곳에서 1960년에 360여 곳으로 감소되었다(<부산일보> 1960.4.22.). 커피 수급은 점차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 것이 부산 다방업체가 감소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전시통제체제부터 1950년대 반자유주의적 규제조치는 부산의 커피산업에 매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공간으로서의 다방에 대해 다음 절에서 다루겠다.

자유와 통제, 그 사이의 부산 다방

1950년대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자유당 정권이 한국전쟁기에 장기집권을 위해 각종 개헌과 부정선거, 관건선거가 공공연히 자행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서슬퍼런 독재체제를 직접 비판하지는 못했지만 다방에서의 찾값이 45환인데 50환을 주면 체면상 5환의 거스름돈을 차마 돌려달라 하지 못하던 당시의 다방 풍속을 “사사오입”이라고들 했다(<부산일보> 1955.1.09). 당시 대통령 중임철폐와 국무총리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졸속으로 처리했던 사사오입 개헌을 거스름돈을 어물쩍 넘

기는 다방을 풍자한 것이었다.

지식인들의 사랑방이었던 다방에는 조심스럽게 정치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55년의 지방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내의 다방에서는 수많은 정치적 만남이 이루어졌고(<부산일보> 1955.7.3.) “다방도 선거풍으로 말미암아 호세월”이었다고 한다. 이듬해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컸다. 1956년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의 강적이자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후보였던 신익희가 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합법적인 정권교체에 희망을 품었던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며 부산에서는 약 천여 명의 군중들이 자유당 타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데모가 일어났다(<부산일보> 1954.5.7.). 그리고 시위대는 파출소와 자유당도당사무실과 자유당원들이 자주 출입했던 십오야다방과 초원다방 등에 돌맹이를 던져 수십 명의 창문을 깨뜨렸다.

5월 15일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개표가 시작된 당일 저녁 8시부터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에 지친 부산시민들에게 선거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시 국민들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한 독재의 종말을 희망하며 신문사의 속보판, 다방, 국제시장 등에서 선거 결과를 기다렸다. “걸잡을 수없는 흥분에 사로잡힌 시민들보다 다방을 근거로 한 일부 지식인들은 각자 가진 상식을 마음껏 구하여 지방별 득표수와 자기가 예상·희망하던 숫자와의 차이를 설명”하였다고 전한다(1956.5.17.). 신문에서는 선거직후 반응을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신문사 속보판에서, 다방에서,

국제시장에서의 상기된 유권자들의 반응을 각각 전하였다.

5월 21일의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기봉을 근소한 차이로 이겨 부통령이 되었는데, 부산 시내 다방 일각에서는 이 결과로 제법 술렁였다고 한다(<부산일보> 1956.5.21.). 선거가 끝나고도 부산의 다방에 모여 선거평을 하는 풍경은 낯설지 않아서, “최근 직장이나 다방에는 모이기만 하면 의례히 선거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1956.7.29.). 1950년대 중반부터 당시 독재정권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하고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다방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1960년에 있었던 3.15부정선거의 험악한 분위기는 다방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특히 선거 당일부터 마산 시위에서의 목격담이나 21일 중앙선대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거리가 부산의 다방에도 전해졌다. 4월 9일 계엄령이 실시된 후 학교, 상가 등의 휴업했다. 부산에서는 당시 360여 곳의 다방이 개점 휴업한 상태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컸다. 부산상가 전체 현찰의 하루 평균 회전액이 2~3억 환인데 계엄이 3일째라 경제적 타격은 10억 환에 이르렀다(<부산일보> 1960.4.22.). 하지만 마산뿐 아니라 전국각지 특히 서울에서의 시위가 확산되었고 결국 4월 26일에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통령에서 하야한다는 발표가 있기까지 전국이 들썩였다.

4·19혁명은 지난 10여 년간의 굴절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각계각층의 데모로 분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부산

의 다방업계에도 전해져, 부산에서는 다방을 포함한 집객업자가 하루 휴업을 하고 상경하여 데모에 참가하였다(<부산일보> 1960.5.30.). 세금 인하를 위해 참가한 부산의 요식업자 중 다방이 1,773여 곳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 달 전의 집계와 큰 차이가 나서 다소 의심스럽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다소 싸늘했다. 부산 시내 다방마다 “사월혁명정신을 본받아 외래품인 커피를 배격한다”는 쪽지가 붙고 커피가 100환에서 150환으로 인상된 가격표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한다(<부산일보> 1960.6.21.). 이러한 활동은 나중에 학생계몽대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고급 외래사치품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다방의 커피가격에도 불뚱이 튀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커피와 다방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은, 4·19혁명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부산일보> 1960.8.4.).

경찰에서 취급되던 집객업 허가사무가 보안사령부로 이관되었다. 부산에서 허가 갱신이 필요한 다방업소는 472여 곳이라고 하여, 1954년 이전의 다방 500여 곳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부산일보> 1960.11.12.). 장면 정부는 4월, 밀수나 주한미군의 구호물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외래 판매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특정외래품의 품목은 총 19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2종 코코아, 음료수, 담배, 주류 기타 기호품 속에 커피가 포함되어 있었다(<부산일보> 1961.4.11.). 이들 품목의 소유·점유·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전량 몰수하고 처벌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부산 시내 대부분의

다방에서 커피값이 150환으로 뛰어올랐다. PX를 통해 유입되는 커피원료(MGM)의 가격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었다(<부산일보> 1961.5.9.).

공교롭게도 이 정책을 실제로 실시하게 된 것은 박정희가 일으킨 5·16군사쿠데타 이후였다. 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후에 부산 시민들은 “제각기 정신무장을 하고 혁명군의 뒤를 이어 조국재건에 나서고 있다”고 하여 당시 부산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중앙동부터 광복동일대의 다방, 당구장, 술집 등은 한산하거나 휴업하였다(<부산일보> 1961.5.23.). 박정희가 주도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구정권하의 악질적인 폐습을 일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에 대해 유흥장의 출입금지, 외식을 금지하고 도시락지참 등을 장려했다(<부산일보> 1961.5.25.). 대학생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중고생들은 삭발하며 다방과 당구장 등의 출입은 금지되었다(<부산일보> 1961.6.1.). 이로 인해 남편의 귀가시간이 빨라져 가정에서도 청풍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4·19혁명 이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제한받았다. 5월 29일부터 부산 시내 다방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지 경찰에서 단속하기 시작했다(<부산일보> 1961.5.29.). 부산 시내 카바레·요정·다방 총 534개소 중 133개소가 혁명에 발맞춰 자체 휴업하였다(<부산일보> 1961.6.2.). 133여 곳 중에서 다방은 23개소였다. 부산의 다방업자들은 자진해서 커피를 팔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반할 시 다방조합에서 제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부산일보> 1961.6.13.). 하지만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커피를 몰래 판 다방 13여 곳이

적발되었다.

9월 1일 외래품 판매금지가 정식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커피 대신 차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기사를 실어 커피 판매금지 조치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다방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샀다. 부산의 다방들은 겉으로는 이 조치를 따르는 듯했지만 단골손님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커피를 팔다가 적발되었다. 주로 광복동의 희다방 한미다방, 별다방, 부평동의 콘도라, 미도, 승리다방, 중앙동의 아라비카, 송미다방, 영도의 해교, 나루터, 포구, 가나다라, 신선 등등, 영도 중앙동 일대의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다방 이름들이 줄줄이 커피를 팔다 적발되었다. 적발된 다방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세 달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다방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다방에서 커피판매가 근절되지 않자, 아래 사진과 같이 같이 1962년 부산세관은 압수 보관한 미제커피 83통을 영도다리 부근 바다에 버리거나 태워버리는 퍼포먼스까지 강행했다(<부산일보> 1962.5.9.).



작금혁명, 외래품 일소 - 간혹 커피가 말병이지만... 손색없는 국산품 <부산일보> 1962.5.9. 일부 ©부산일보

이 시기 부산시 5개 구 중에서接客업소가 가장 많은 중구에는 231개의 다방이 확인된다(196.7.29.). 적발 업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강경한 조치를 남발할 수 없어 부산시에서는 기존에 적발된 다방의 조치를 환원시켜주기도 하고 부산시 다방업자 대표들을 초청한 회의를 열어 외래커피 판매금지, 영수증 발급, 철저한 위생을 강조하였다(1962.6.7., 6.13. 9.8.).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고 외래커피 판매는 근절되지 않았

커피 마다, 부산

다. 특히 부산에서는 국제시장과 부평동에서 외래품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당국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수입한 미제 커피 418포를 적발하기도 하였다(<부산일보> 1962.7.30.). 이에 다방업자뿐 아니라 외래커피를 판 마담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고, 실제로 마담들에 대한 구속기사가 이어진다.

광복동의 한 다방에는 국산커피를 시킨 손님이 자기가 갖고 온 외래품 커피를 섞어 마시다가 경찰관 단속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1962.03.16). 중앙동 소래유다방에서는 단속 경찰관 몰래 커피를 2층 창문으로 버리려다가 다방 주인이 추락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1962.09.17.). 외래 관금 단속원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한 사기꾼도 있었다(1962.12.04.).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커피없는 다방을 강제한 사회의 일면이었다.

다른 외래품 중 커피만 유독 관금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외래커피 관금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부산일보> 1963.01.23.). 결국 3년간 지속된 외래커피 판매금지조치는 1964년 9월 25일을 기해 특정외래품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면서 해제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민주적 요구가 증대되어가고 다방이 정치적 사랑방이 되어가던 시기와 맞물려, 다방에서 개최하는 모임도 다양해졌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기에도 시화전이나 각종 토론회, 문예모임이 열리기는 했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는 동창회나 등반모임도 부산지역의 다방에서 개최되었다.

게다가 기존의 문화행사 또한 해설을 곁들이거나 연극과 음악, 토론을 곁들인 복합문화행사가 다방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1956년에는 ‘슈만의 밤’이라는 행사가 남포동 신신다방에서 70여 명이 참가하여 성대히 개최되었다. 하모니 피아노 상회 주최, 부산 실내악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슈만의 교향곡과 연가곡 여러 곡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부산일보> 1956.08.01). 1964년에 다촌다방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기획을 시도하였다. 아카데미상스라는 단체가 주최한 “문학, 음악, 영화, 미술, 연극 그리고 각테일이 있는” 이색적인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아방가르드 재즈”의 수락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재즈감상과 해설(이상기), ‘현대 영화의 조류’(김성복), ‘현대문학의 움직임(정강홍)’ ‘생활미술에 도전하는 언폼 디자인’(김형석) 등의 강연도 있고 모노드라마 ‘미완성이후’(허광길작, 여수중 연출, 황영규 음악, 출연 이반환)도 상연되었다고 한다(<부산일보> 1964.12.26.).

게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는 다방의 이용 대상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경향도 보인다. 해방 이후 다방의 주요 이용대상자는 절대적으로 남성 지식인에 집중되었지만, 점차 선원, 군인 등과 같은 다양한 남성 직업군으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여성들도 다방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7년에 처음 개최된 미스코리아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특히 미용실이나 다방에서 후보를 추천하곤 했는데 부산에서는 은촌다방이 추천한 사례가 있거나(<부산일보> 1961.4.5.) 미스 경

남의 당선자가 옥샘다방에서 축하파티를 여는 등의 이벤트도 눈에 띈다 (<부산일보> 1961.5.5.).



“다방마다 관객 소동- 김기수-벤베누티 대전 TV재 생중계” <부산일보> 1966.06.29. 일부 ©부산일보

커피 마다, 부산

텔레비전의 출현도 다방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 각 가정에 TV가 아직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 TV를 갖춘 다방이 있었다. 1966년 6월 28일에는 김기수와 벤베누티의 복싱 세계챔피언 타이틀 매치전이 TV로 중계되었는데 이를 구경하기 위해 부산 시내 TV를 둔 다방마다 만석을 이루며 해당 경기를 시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부산일보> 1966.06.29.). 남성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특히 노모까지 데려온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한 다방에 100여 명의 인파가 몰리자 마담과 쿡은 다방문을

잠귀버렸다고 한다. 물론 한 사람당 50원씩의 이용료를 받아 다방은 전에 없는 호황을 누렸다.

한국 특히 급증하는 부산의 다방과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당시 미 공보처(USIS)에서는 부산 대학생으로 구성된 부산학생연구회(Student Research Club of Pusan, an organization of university students)를 통해 1968년 1월 동안 부산지역 다방 554개소, 120명의 여성종사자, 309명의 다방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한국의 다방과 커뮤니케이션(Tea Rooms and Communication in Korea)이란 제목하에 1970년 4월 8일 발행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부산의 다방은 부산의 변화가인 중구에 반 이상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용객의 88%가 남성,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83%로, 이들은 사교와 정보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다방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⁶². 여전히 부산 다방의 이용은 남성 지식인의 수가 월등히 많지만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방의 다채로운 활동은, 경제력과 구매력이 증대됨에 부산의 카페와 다방의 이용객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다방이 휴식과 레저 공간만이 아니라 마을이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펍, 오스트리아의 커피 하우스, 그리고 한국 전통 가옥에서 이웃

62 U.S. Information Agency,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TEA ROOMS AND COMMUNICATION IN KOREA, April 8, 1970.

집과 맞닿아 있는 ‘뒷마당 담장(back yard fence)’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 공보처가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뿐만 아니라 그룹토론, 출판물 배포, 전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음악다방 시대(1970-80년대)

음악다방. 음악과 더불어 쉬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곳.

1965년경 차츰 음악 감상실이 라디오방송 앞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기존의 다방 형태에서 음악을 앞세운 음악다방이 본격 등장했다. 1970년대 부산 남포동과 광복동에는 자갈치 시장과 용두산 공원 등의 휴식공간이 있어 대학생이나 젊은이들로 붐볐다. 그러다 보니 남포동, 광복동, 신창동 일대는 음악다방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⁶³.

1970년대 중앙동 반도호텔 주변의 다방과 동광동 부산호텔 사이의 많은 다방은 주위 사무실의 커피 배달은 물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안식처였다. 문학과 예술을 불태운 아지트였고 맞선과 데이트의 중심이었다. 나이 든 어른들의 사랑방이자 대학생들의 공부방, 직장인들의 휴게실이기도 했다. 실업자의 연락처였고 회사 없는 사장님의 등지였다. 항상 담배 연기가 자욱하였고 아침부터 모닝커피를 시켜놓고 마담과 레지

63 강동수 외, 『추억을 마시다 공간에 스며들다 부산의 다방』 부산문화재단, 호밀밭, 2018, 58p.

들의 농담을 주고받았다⁶⁴.

항구도시 부산은 팝음악 수입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 외국을 드나드는 선원들을 통해 외국 최신음반을 사들일 수 있었고, 하야리아 부대(주한 미군기지)가 있었으므로 DJ들은 하야리아 부대 근처에서 AFKN 라디오로 최신 팝송을 듣거나 광복동 외서 골목에서 ‘롤링스톤’과 같은 미국 대중음악잡지를 사서 공부할 수 있었다⁶⁵.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부산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대중음악감상실은 1970년 여름에 문을 연 ‘무아’였다. 1970~80년대를 지내온 사람들은 ‘무아’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무아’는 1970년대 최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TV와 음향기기 확대 보급과 여러 음악다방의 등장으로 퇴조의 길을 걸었던 젊음의 문화공간이다. 무아는 당시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의 유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였고, 당시 서울의 젊은이들이 부산에 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행 필수 코스였다⁶⁶. 광복동 입구의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있었는데, 1970년대 초반에 7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요구르트 하나를 주었다고 한다. 조명이 어두운 실내는 170평에 280석의 좌석이 있었고 정면에 DJ박스과 대형 스피커가 있었으며 개인용 소파가 정면을 보고 일렬로 놓여 있었다. 소파의 팔걸이 양쪽으로 널빤지를 가로질러 책상을 대용하도록

64 강동수 외, 『추억을 마시다 공간에 스며들다 부산의 다방』 부산문화재단, 호밀밭, 2018, 49p

65 국제신문, “김형찬의 대중음악 이야기 <5> 부산의 다방”(2016.02.01)

66 향토문화전자대전, “광복동 음악다방 DJ들이 만든 부산 문화”

했다. 중간에 나가서 점심을 사 먹고 들어올 수도 있었으나 안에서 담배와 대화는 금지사항이었다. 1970년대 부산 광복동에는 '무아' 이외에 '칸타빌레', '목촌', '하늘소', '수다방', '청다방' 등 음악다방이 30여 군데에 달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DJ의 숫자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사상구 삼락동 사상생활사박물관 - 70년대의 음악다방 재현



커피 마다, 부산



◀ '무아'의 마지막 DJ였던 윤주은 대표가 운영하던 '고맹이무아' 전경. 22년 7월 현재 폐업

▼ 고맹이무아 입구



1980년대 큰 인기를 끌던 음악 감상실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 오디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모여서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젊은이들의 취향에 밀려나 팝 위주의 음악다방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게 되었다.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인근에는 필하모니라는 클래식 음악 레스토랑이 있었다. 이곳은 지난 1981년 중구 광복동 B&C 맞은 편에 문을 열었다. 당시 월세가 부산 시내에서 가장 비쌌던 곳으로,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입장료로는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2년 만에 용두산 공원 입구 근처로 옮겼다가 외국서적 골목으로 밀려났었는데, 1990년 8월, 인근 양복점에서 발화된 불길로 한 줌의 재로 변했다. 93년 4월 광안리 바닷가에 다시 문을 연 후, 2002년 부산문화회관 옆 지금의 자리에 둥지를 틀었다⁶⁷. 예가체프, 블루마운틴, 케냐 등의 원두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준다.



클래식 음악 레스토랑 필하모니

67 국제신문, "필하모니' 대표 조영석 씨"(2006.08.26.)



클래식 음악 레스토랑 필하모니

부산 최초의 다방(에텐다방)을 통해 클래식 음악이 도입되었고 전문음악감상실이 등장한 곳이 광복동과 남포동이다. 한 집 건너 다방일 정도로 문화공간이 늘어났다. 1980년대 말까지 미술, 음악, 문학 지망생이나 재학생들이 언제든지 광복동과 남포동을 함께 어우른 '광포동'에 가면 훌륭한 스승이자 선배인 시인, 화가,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⁶⁸.

68 향토문화전자대전, "광복동 음악다방 DJ들이 만든 부산 문화"

커피숍 시대(1990년대)

서구의 카페문화가 우리나라에 ‘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어온 것은 1920년대 말이다. 사르트르가 실존을 논하고 헨리 밀러가 작품을 집필하던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공간이 서구의 카페였다면, 개화기 이후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다방 역시 이런 역할을 했다. 서울 동숭동의 ‘학림’이나 광화문의 ‘아리스’ 등은 학자와 예술인이 교류의 장으로 삼던 곳이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다방이 보다 대중화 되기 시작해서 일반인에게 ‘만남의 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다방만 가면 너도나도 사장님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짜 사장님’이 많던 곳이기도 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음악다방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 서면서 ‘카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종다방의 영향으로 기존의 다방은 ‘중장년층이 소일하는 장소’로 이미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카페’는 단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현대적 감각을 내세워 다방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덕분에

한때는 ‘밥값보다 비싼 차값’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⁶⁹.

당시 카페는 단순히 음악과 커피만 있는 곳이 아니었다. 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 한정하기보다는 세대 간 동질성을 공유하는 문화공간이자,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유행하는 공간이며, ‘만남의 장소’였다.

1970~80년대의 남포·광복동의 음악다방 전성시대를 거쳐, 1990년대부터는 대학가·서면·해운대 등지를 중심으로 커피숍 시대가 열린다. 1990년대는 그야말로 카페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커피숍’인 것을 알 수 있다⁷⁰. 이들이 즐겨 찾는 커피숍들은 대부분 대형 투명유리창을 설치해 햇빛이 들어와 실내가 밝고 시야가 트인 데다 단순한 인테리어로 분위기가 깔끔한 것이 특징이었다. 거리의 풍경이 훤히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들여다보이는 자리가 인기가 있어 신세대의 개방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대학생들은 또 좋은 카페나 커피전문점의 기준으로 밝은 실내 분위기, 편안한 의자, 즐겨 듣는 음악이 자주 나오는 곳, 조용함 등을 들었다⁷¹. 밝고 적당한 공간을 확보한 커피숍은 1990년대의 상징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삐삐’라고 불렀

69 국제신문, “[신세대]카페 변천사..「학림」에서「쉬바」까지 ‘격세지감’”(1997.08.06.)

70 국제신문, “대학생,커피전문점 선호...만남 장소로 값싸고 분위기 좋아”(1993.12.08.)

71 국제신문, “대학생,커피전문점 선호...만남 장소로 값싸고 분위기 좋아”(1993.12.08.)

던 무선호출기 보급의 확산과 함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카페와 커피숍에는 좌석마다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다방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며 '다방업중앙회'도 30여 년만에 단체 이름을 '휴게실업중앙회'로 바꾸게 된다. 해방 이후 매년 늘어나던 다방 수는 1975년 허가지역 제한이 풀린 이후 급증하였으나 1992년 4만 5천여 개를 고비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3만 3천여 개만 남게 되었다⁷².

1990년대 중반, 부산에는 원두커피 전문점이 등장하게 된다. 가비방은 부산대 앞 1호점을 시작으로, 부산·경남지역에 47호점까지 갖췄던 프랜차이즈 카페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이다. 커피 원두와 관련된 모든 것이 구비된 이러한 전문점에서는 커피용품을 사러 오는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를 맛있게 조리하는 법과 맛있게 마시는 법도 알려주었다.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⁷³.

72 국제신문, "다방이「휴게실」로 바뀐다... 중앙회 30여 년만에 단체명칭 변경"(1997.02.18.)

73 국제신문, "유망전문점 <8>...원두커피용품·커피메이커 빌려줍니다"(1996.03.04.)

5 _____

커피전문점(200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커피전문점은 현대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외식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커피전문점의 대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에스프레소 커피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커피의 품질에 따른 차별화 경향이 심화되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고품질의 커피와 품격 높은 휴식공간으로 커피전문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⁷⁴. 스타벅스 커피가 1999년 한국에 1호점을 오픈한 뒤 2001년 5월, 부산에 스타벅스가 문을 열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찾는 수요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원두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곳곳에 직접 원두를 볶아 핸드드립한 커피를 제공하는 로스터리 커피숍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커피에 관한 상식이 깊어지며 입맛도 섬세하게 변해가는 것이다. 인스턴트커피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에스프레소의 유행으로 이어지는 커피 트렌드가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테이크아웃 커피가 확산되는

74 박영승 2010, 「커피전문점의 브랜드 자산이 매장 이미지,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커피문화도 등장한다.

커피의 대중화와 스타벅스의 한국 진출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커피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졌고,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산에도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이 탄생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카페가 단순히 음료나 디저트를 ‘먹고 마시기’ 위한 곳이었다면, 점점 무언가를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갔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 카페에서 업무를 보는 ‘코피스족’도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커피전문점 이야기를 하자면, 부산 1세대 로스터리 카페라 할 수 있는 ‘휴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2001년 동대신동 지하철역 부근에 문을 연 커피전문점 ‘휴고’는 당시의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 잘 알려진 명소이다. 당시에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 판매를 선보여 사랑을 받았다⁷⁵. 2-3가지의 원두를 블렌딩하여 휴고만의 독특한 맛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커피를 내리며 커피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휴고

75 부산일보, [이 집에 가면]지하철 동대신동역 앞 커피전문점 ‘휴고’ (2009.01.11.)



휴고

에스프레소 전문점이자 직접 하는 로스팅으로도 유명한 부산데파트 인근의 ‘바우노바’. 인근 한성1918(구 한성은행 부산지점, 청자빌딩)과 백산기념관 옆에 자리 잡은 ‘바우노바 백산’. 직접 로스팅하고 블렌딩한 원두로 내리는 산미 가득한 커피맛이 인상적이다.



바우노바



2007년 온천장 지하철역 앞 음식점 한구석에 작은 테이크아웃 코너를 만들어 커피 시장에 뛰어들 '모모스'는, 2010년에는 베이커리로 사업영역을 확장, 2011년 바리스타 아카데미 개설, 2012년에는 본격적으로 산지와 원두를 직거래하기 시작했다.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모모스커피

블랙업커피(舊커피공장)의 김명식 대표는 대학 졸업 후 국내 모 대기업의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6년 동안 신규 점포 개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지원 업무를 맡았다. 특히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부산 커피 시장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커피 소비 트렌드가 인스턴트에서 에스프레소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블랙업만의 독특한 메뉴를 개발하는 데 몰두하였고, 좋은 재료로 값싼 제품을 만들면 고객들의 가격대비 만족도가 커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⁷⁶. 현재 블랙업커피는 서면 본점을 포함하여 양산, 울산, 거제까지 매장을 확장, 10여 개의 대형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으로 다양한 커피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

커피 마다, 부산



블랙업커피



76 부산일보, "커피공장' 마케팅 비법" (2008.10.02.)

기존의 커피 문화를 식상해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에스프레소 바(espresso bar)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 또한 최근의 현상이다. 예전에는 신선하지 않은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뽑아 쓴맛이 강했지만, 전반적인 커피 원두의 품질 향상과 질 좋은 원두의 공급, 로스팅 기술력 등으로 신선한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산에도 에스프레소 바의 유행을 타고 전문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카페 사업의 호황과 함께 주로 프랜차이즈 위주로 돌아가던 카페 시장에 각각의 개성을 지닌 개인 카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인 카페의 주인들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나기 위해 커피의 맛은 물론 그 외적인 요인, 예를 들면 커피 원두를 와인처럼 산지를 따지는 등의 전문성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주인은 개성을 담고, 고객은 취향을 찾아간다. 그래서인지 젊은이들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은 다양한 커피와 카페문화가 확장되는 '카페 춘추전국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페셜티 커피, 전망과 경치를 즐기는 카페, SNS 인플루언서들이 즐겨찾는 카페, 저렴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대용량 커피까지 그 폭이 다양하다.



에스프레소 바



커피 마다, 부산

III

커피 바다, 부산

1. 부산의 카페거리
2. 바다를 품은 카페
3. 항구에서 대해로

오래전 바다를 통해 들어온 커피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커피가 우리나라로 전해진 그 당시에는 몇몇 소수의 사람만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다방, 커피숍의 시대를 넘어 현재 우리는 카페에서 혹은 집에서, 직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시대별로 커피를 마시는 방법과 커피를 매개로 한 커피 문화가 변화하였듯 지금의 카페 역시 시대를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커피를 마시는 공간은 시대별로 공간 이용자의 성별, 연령층이 달랐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원두커피가 유행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은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이 되었다. 1999년 이화여대 부근에 글로벌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Starbucks)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기반의 메뉴를 중심으로 커피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외국계 커피전문점이 하나둘씩 생겨났으며 뒤를 이어 할리스, 이디야, 카페베네 등 한국형 커피전문점이 생

겨났다⁷⁷.

2019년 유로모니터의 세계커피시장 분석에 따르면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프랜차이즈 커피숍 등)'의 연매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1위 미국(261억 달러)이다. 미국의 뒤를 이어 2위는 중국(51억 달러), 3위는 한국(43억)이다. 한국의 카페 매출액은 2006년 6억 달러에서 2018년 43억 달러(2018년 전망치)로 2007년 기준 국가별 순위 7위에서 3위로 급성장했다. 인구를 감안하면 1위 미국보다 한국의 소비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캡슐커피, 인스턴트 커피믹스'의 판매량은 19억 달러로 10위에 머물렀는데,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의 매출액과 순위를 비교해 볼 때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것을 알 수 있다(중앙일보 2019/03/16)⁷⁸. 이는 한국의 커피 문화와 카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기도 하며, 주말이면 가족, 친구, 연인과 도시 외곽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음료를 마신다는 것 이외에 커피를 내어주는 공간을 소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가통계포털 KOSIS⁷⁹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부산에는 약 4,800여 개의 카페가 있다. 카페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공

77 송만호, 2020, 「한국 커피 산업 발전사」

78 중앙일보, [주말PICK]원두 전량 수입하는 한국은 세계 3위 '카페 공화국' (2019.03.16)

79 KOSIS 국가통계포털

간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모임을 위해, 업무나 공부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등 사람들이 카페를 찾고 방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상적인 공간이 된 카페는 개인 혹은 기업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카페가 밀집된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부산의 카페는 시대별로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중심에서 발달하기도 했고, 공간의 기능이 감소한 이후에는 빈 공간을 채우면서 재탄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에 항구나 바다는, 부산 카페의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1 _____

부산의 카페거리

카페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의 공간 일부로 자리 잡았다.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을 위해, 업무나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등 자연스럽게 갈만한 카페를 검색하고 방문한다. 카페가 개인 혹은 기업만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카페가 밀집된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카페거리’는 일반적으로 주택가 1층 도로 양옆으로 카페나 식당 등이 줄지어 있는 곳을 말한다. 2010년 전후로 전국 곳곳에 카페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카페거리의 카페들은 대부분 개인 창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이었다. 카페거리가 활성화된 데는 대로변 상권의 높은 임대료를 피하는 경제적인 이유, 획일화된 소비보다 개인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호,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연관되어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카페 이후 등장한 카페거리는 새로운 커피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다. 부

산의 대표적인 카페거리로는 전포카페거리, 온천천 카페거리, 해리단길, 영도커피특화거리 등이 있다⁸⁰.



부산의 카페거리

80 박준영 2020, 「독립카페 공간 선호에 관한 주관성 연구 :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포카페거리



◀ 전포카페거리
▼ 전포카페거리 지도



커피 마다, 부산

전포카페거리는 공구상가와 기계부품 상가가 외부로 이전하면서 한때 슬럼화가 진행되던 곳이었다. 이곳에 2010년을 전후로 젊은 창업자들이 개성 있는 카페를 열고부터 자생적인 도시재생의 현장으로 재탄생했다. 10년 전만 해도 대우버스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전포동 공구상가로 유명했으나, 2009년 전후로 생산공장 이전과 제조업의 쇠퇴로 공구상가, 철물상가들이 하나둘씩 떠난 자리에 작은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뉴욕타임스는 2017년에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 곳(52 Places to Go in 2017)을 선정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48번째로 부산이 소개됐는데, 독특하게도 뉴욕타임스가 주목한 대목은 디자인이었다. ‘디자인 명소로 떠오른 저평가된 제2의 도시’란 제목을 달고 전포동 카페거리, 옛 백제병원의 브라운핸즈커피, 부산디자인페스티벌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공구상가였던 전포카페거리가 지역 작가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한 창조 허브로 변했다며 높이 평가했다⁸¹.

전포카페거리의 장점은, 메이저 업체들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의 획일적인 커피 맛에 식상한 사람들이 다양한 고급 커피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점, 소규모 카페의 안락함과 편안함, 개성 넘치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⁸².

전포카페거리는 서면에 있는 젊음의 거리 상권의 배후지역으로서 2010년 이후 개인 커피전문점이 모여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신흥 상권이다. 과거에는 공구, 철물상가 등이 밀집했으나 현재는 카페, 퓨전음식점, 의류점 등이 들어서면서 공구상가와 문화소비업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포카페거리는 서면특화거리 동측으로 동천로와 전포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486동에 1,029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2018 통계). 이 지역은 2010년 이전에는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으로 ‘우

81 부산일보, “뉴욕타임스 ‘2017년 꼭 가봐야 할 세계명소 52곳’에 부산 선정” (2017.01.05.)

82 부산일보, “부산의 ‘삼청동’ 서면 카페골목을 아시나요?” (2011.11.08)

범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으나, 2009년 전포카페거리에 카페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카페가 모여들면서 2011년에 처음으로 ‘서면카페골목’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부산의 삼청동’이라 소개된다. 이후에도 계속 인터넷 기사 및 SNS를 통해 소개되는데 지금과 같은 ‘전포카페거리’라는 명칭은 201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제 1회 전포카페거리 커피 축제를 시작으로 매해 커피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6월에는 ‘부산세계커피박물관’을 개관하여 카페거리로서의 상징성을 높이고 있다.

커피 마다, 부산



전포카페거리 전경



전포카페거리는 기존의 전포성당 주변에서 최근에는 부산진소방서가 있는 공구상가 일대와 전포대로를 건너 전포1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임대료가 높아짐에 따라 메인거리를 떠나는 이유⁸³도 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리단길과 전포사잇길로 확대되고 있다. 전포카페거리에는 세월의 흔적에서 향수를 찾고 새롭게 등장한 개성 가득한 카페를 찾는 재미가 공존한다.



전포카페거리 오디너리부산



83 국제신문, "임대료 저렴한 사잇길로...반경 넓어지는 전포카페거리" (2022.05.11.)

온천천 카페거리

온천천에는 벚꽃이 피는 봄이 오면 꽃구경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주거지 속 도심공원인 이곳에 부산의 대표적인 카페거리로 언급되는 온천천 카페거리가 위치하고 있다. 동래구 안락2동 온천천로 400m 남짓한 거리에 카페와 음식점이 줄지어 들어섰다. 온천천 카페거리는 2011년께 이 길에 카페가 하나둘 생기면서 형성되었고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신홍 명소로 떠올랐다. 한두 곳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이 2~3년 새 30여 개로 급증했다⁸⁴.

온천천 카페거리는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의 유입으로 악취가 진동하던 온천천 지역에 1995년 온천천 살리기 운동이 시작된 후 2011년 생긴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고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하루 1만여 명이 찾는 도심으로 변모하였다. 거주용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이기에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더욱 늘어났다. 주거지 속 위치한 카페와 음식점은 온천천 카페거리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공존으로 인한 주차문제,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천 카페거리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가게마다 번호를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84 부산일보, "신홍 명소 온천천 카페거리엔 주차장 좀!" (2015.12.14.)



<사진 6> 은천천카페거리

해리단길과 망미단길(망미골목)

해운대구 우동 옛 해운대 역사 뒤편에 위치한 해리단길과 수영구 망미동 망미변영로 일대 망미단길은 부산의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이 있는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해리단길에는 옛 해운대역사 뒤편에 위치한 마을로 동해남부선이 폐선되어 해운대역사가 운영을 멈춘 후 개성 넘치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과거 해당 지역은 철길 근처에 있어서 마을 주민 외에는 사람의 왕래가 드물었다. 하지만 2013년 12월 동해남부선 해운대역 구간이 폐선된 후 철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쌓은 벽이 허물어지고 철길이 산책로로 정비되었다. 이후 이 마을에서 보기 어려웠던 카페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어 '한적하지만 여유로운 풍경과 이색 맛집이 있는 곳'으로 SNS를 통해 소문났다. 2017년부터는 사람들이 이곳을 서울의 경리단길을 본따 해리단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에도 선정되었다⁸⁵.

'오리단길'은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에서 시작되었는데, 경리단길은 2012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합된 육군 중앙 경리단이 있었던 곳에서 유래되었다. 국군재정관리단 정문부터 그랜드하얏트 호텔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과 주변 골목길을 경리단길로 부르게 되었다. 인근지역에

85 한겨레, "부산 해운대 해리단길 둘러볼까요?" (2019.02.02.)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이국적인 소규모 카페, 상점, 음식점들이 입점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경리단길은 곧 지역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으며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전국적으로 ‘오리단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⁸⁶.

경리단길은 상권으로서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이야기를 가진 가게들이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 곳이 되었다. 경리단길처럼 ‘오리단길’이 되기 위해서는 목이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작고 개성 있는 카페, 이국적인 음식점들이 있어야 하며 개성적인 인테리어 역시 필수적이다.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상점들은 20-30대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⁸⁷.

해리단길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식당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카페와 작은 소품샵 등 감각적인 공간이 많으며 고층 빌딩이 즐비한 해운대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해리단길은 옛 동해남부선에 가려 낙후된 마을이 철길 폐쇄와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다.

86 오마이뉴스, “리단길 열풍의 역효과” (2019.04.12.)

87 서울경제, “어디에나 하나쯤 있지 않나요?...브랜드가 된 ‘오리단길’” (2019.08.18)



▲ 구 해운대역사
▼ 해리단길

커피 마다, 부산



해리단길 카페

수영구 망미동 망미번영로 일대의 망미단길은 골목길 구석구석 위치한 카페를 찾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망미단길은 수영사적공원과 수영고가교 사이의 수영번영로 일대를 말한다. 이곳에는 젊은 감성의 작은 카페가 더러 있었는데 망미단길이라는 이름이 퍼지면서 카페, 꽃집, 식당 등 점포가 증가하였다⁸⁸. 망미단길은 여느 전포카페거리나 해리단길과 달리 점포들이 골목 구석구석에 퍼져있어 보물찾기하듯 카페를 찾아 다니는 재미가 있다.

최근 망미단길은 주변에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카페거리를 넘어 문화예술지구로 변모하고 있다. 망미단길에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과 더불어 독립서점, 전시 공간, 공방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생겨났다. 전시

88 부산일보, "[부산 핫플레이스] 골목의 재발견 '~리단길'" (2019.08.28.)



망미골목

카페 마다, 부산

공간뿐만 아니라 도자기, 금속, 목가구, 옷칠 공방, 독립서점들이 이곳에 자리하면서 망미단길은 카페거리를 넘어 문화 예술까지 포괄하는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문화예술거리로 거듭나고 있는 망미단길은 과거 고미술품상이 많은 거리였으나, 임대료 상승으로 고미술품상이 빠진 자리에 카페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공방, 서점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모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출신의 기획자와 청년들은 책자를 만들어 망미동과 수영동 일대의 변화를 알리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까지 포괄하는 망미골목으로 불리고 있다⁸⁹.

89 부산일보, "SNS 핫플 '망미골목', 문화 르네상스 꽃피다" (2020.01.20.)



망미골목 카페



망미골목 서점

영도커피특화거리

5-6년 전까지만 해도 영도는 커피로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다. 영도는 이제 ‘커피섬’이라 할 수 있다. 로컬리티를 지향하는 카페나 문화공간들이 카페나 굿즈샵 같은 복합예술문화공간의 형태로 봉래동·청학동과 대평동(깡깡이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를 재단장하는

방식으로 영도에 들어서고 있다. 봉래동의 ‘무명일기’와 수영장을 카페로 개조한 ‘잼스톤’, 청학동의 신기잡화점(신기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거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커피특화거리로 거듭날 예정이다. 전포동카페거리, 온천천카페거리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커피거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시는 공장과 창고가 줄줄이 늘어선 산업 공간이었던 봉래나루로(부산대교 하부부터 대선조선까지의 거리)를 커피를 마시며 걷기 좋은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2021년 12월 문을 연 모모스커피 로스터리&커피 바, 폐공장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 무명일기, 영도구가 창고를 매입해 커피복합거점공간으로 조성 중인 ‘블루포트2021’까지 커피 관련 시설이 모이면서 자연스레 커피거리가 형성되었다.

넓고 좁은 보도를 정비하고, 봉래나루로에 부산 조선업의 시작점과 ‘커피 보물섬 영도’의 의미를 담은 조형물도 설치한다. 커피머신, 선원이 쉬어 가는 형상, 벤치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도 커피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월에 영도구 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커피 산지인 중미(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의 커피 전문가와 농장주를 초청해 커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⁹⁰.

또 국내 최초 ‘카페거리 영화제’ 역시 영도에서 지난 2019년, 성황

90 부산일보, “영도 봉래동 물양장 거리, 부산 대표 커피특화거리 조성” (2022.07.25.)

리에 개최되었다. 영화제가 열렸던 청학동 일대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개인 카페가 즐비한 곳이다. 민간에서 시작된 영도의 카페 ‘봄’을 관에서 이어받아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상영작은 청학동에 있는 카페 ‘신기산업’, ‘신기숲’, ‘카린’, ‘모티브’에서 상영되었고, 지역적 특색을 담은 국내 독립영화 10편이 상영되었다. 카페 관계자들은 민간과 구청이 함께 행사를 꾸린다는 데 큰 의의를 두었다⁹¹.

광안리카페거리

수영구는 2011년 10월 21일~29일,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광안리만의 독특한 카페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제1회 광안리비치 카페 페스티벌’을 해변 카페와 테마거리(그림)에서 개최했다.

2011년 당시 광안리 해변에는 30여 개의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총 200여 개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입점해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카페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업소 내 프로그램이 추가 된다는 점인데, 관광객이 ‘카페 로드맵’을 따라 업소마다

91 부산일보, “카페 핫플레이스’ 부산 영도 청학동서 ‘카페거리 영화제’ 열린다” (2019.07.25.)

준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로스팅’이나 커피 맛을 감별하는 커피(Cupping) 이벤트 등-를 찾아다니며 체험하는 형태의 행사였다⁹².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산은 커피도시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고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미국에서 출발한 비영리기관인 스페셜티커피협회(SCA) 한국챕터의 정연정 매니저는 “스페셜티 붐이 한창이었을 때 부산 커피업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해외 바리스타 챔피언이나 커피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해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초기에는 브랜드가 달라도 함께 커피 생두를 공동 구매하는 일도 잦았다”면서 “부산 특유의 개방성과 협동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⁹³.

92 부산일보, “가을 바다에 커피향 솔솔~” (2011.09.26.)

93 부산일보, “[부산은 커피도시다] ‘개방성과 포용성’ 힘입어 전국서 주목하는 부산 커피” (2021.10.19.)

바다를 품은 카페 - 항구도시 부산과 카페

부산이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산부제의 실시부터이다. 현재 부산의 중구, 영도구, 동구, 서구가 당시 부산부에 해당한다. 이후 동래군과 사하구가 일부 편입되면서 부산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 광복과 함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잠시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피난민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었다. 전쟁 직후인 1955년에는 당시 부산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3년에는 직할시로, 1980년에는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근대도시 부산의 역사의 시작은 중구, 영도구, 동구, 서구가 위치한 원도심에서 찾을 수 있다. 부산 원도심은 개항 이후 동래부 관할 초량 왜관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원도심은 왜관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로이고, 개항 이후 근대문물이 들어온 관문이며 근대화의 시작점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관문이었고, 항방 후에는 귀환 동포가 들어왔던 곳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처럼 항구도시 부산에는 늘 배와 사람이 오고 갔으며 여러 문물과 삶의 양식이 혼합되는 특유의 항구 문화가 형성되었다.

먼저, 부산은 일제강점기 이전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대륙 진출을 위한 후방 병참 기지로 기능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일본의 침략의 발판으로 성장했던 근대도시 부산에는 일본의 흔적인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적산가옥이 한국전쟁이나 급속한 산업화 이후 소멸되거나 남았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그중에 과거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은 일제강점기의 근대식 건축 양식을 연구하는 좋은 사료로 쓰이며, 오늘날에는 카페, 식당,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여 시민들은 부산의 역사를 한 걸음 가까워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카페 바다, 부산

항구도시 부산과 카페





브라운핸즈 백제 외관

브라운핸즈 백제

100년 된 건물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기분을 부산에서는 느낄 수 있다. 부산역 바로 맞은편, 초량동에 위치한 ‘브라운핸즈 백제’는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브라운핸즈 백제’는 1922년 의사 최용해가 개업한 부산 최초의 서양식 종합 병원인 백제병원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백제병원은 부산부립병원, 철도병원과 함께 부산의 3대 병원이었으나 1932년 중국인 소유의 증식당 봉래각으로, 1942년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일본군 장교 숙소로,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부산치안사령부, 중

화민국 대사관 임시사무소로 사용되었으며,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는 부산신세계예식장으로 이용되었다. 의사가 야반도주하자 채권자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공매로 중국인에게 팔거나, 전쟁 중에 돌아간 시설을 일본군이 사용하고, 외국 공관으로 사용되는 등, 이 건물은 한반도에 벌어진 역사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다. 시대별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지만, 현재 이곳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브라운핸즈 백제’에 들어서면 순간 여러 시대를 붙여 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다른 종류로 여러 겹으로 덧댄 벽돌과 벽면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느껴진다. 2014년 이 건물은 제647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공간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과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 건물의 2층에 창작과 비평사 서점이나 독서 공간이 있거나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문학적 재활용이라는 주목할 만하지만, 여러 역사의 옷을 입은 이 건물이 지금은 카페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예전 건물을 재활용한 건물이 광복동이나 보수동에 ‘브라운핸즈’ 카페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역사의 복원이나 도시 재생의 결말에 늘 카페가 등장하는 것은, 이 공간이 사람의 이동을 만드는 촉매이기 때문이라 본다.



◀ 브라운핸즈 백제 입구

▼ 브라운핸즈 백제 내부



초량 1941 외관

초량1941

‘브라운핸즈 백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산의 또 다른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초량 1941’이다. ‘초량 1941’은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산에는 일본과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한국 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이전의 적산 가옥은 많이 변형되고 개조되었다.



초량 1941 내부 모습

‘초량1941’은 부산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1941년에 지어진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로 우유가 주메뉴이다. 적산가옥은 식민 경험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이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초량1941’은 적산가옥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우유를 판매하는 카페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초량은 ‘풀밭의 길목’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산기슭에 초량 목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초량1941’은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공간이다.

‘초량1941’의 매력은 독특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초량’이 가진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로 담아낸 것 아닐까. 적산가옥이라는 역사적 아픔도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재해석되어 시민들에게

한결 편하면서도, 역사적 특징을 강렬하게 품고 있는 것 역시 ‘초량1941’이 가진 강점이라 볼 수 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초량1941’에서는 부산의 원도심과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초량 1941에서
바라본 부산의
원도심

커피 바다, 부산

중구와 다리로 연결된 영도구는 부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영도를 육지와 이어주는 영도대교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부산 최초의 연륙교이자 도개교이다. 다리 상판을 올려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영도대교는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찾는 약속의 장소였다. 당시 영도대교는 헤어진 가족을 찾는 글들이 빼곡했다. 전쟁 후 1966년 영도대교

는 도개를 중단했지만, 영도다리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시민들 속에 남아 현재 시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복원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한국전쟁 중 피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영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업을 대표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수리조선소와 공업사들이 밀집되어 있던 영도는 조선업이 시들해짐에 따라 빈 물류창고와 문을 닫는 수리조선소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빈자리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공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물양장이 있는 대평동은 최근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깡깡이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활기를 되찾고 있다. 깡깡이는 선박을 수리하기 전 배에 붙어있는 조개껍질이나 녹슨 부분을 벗겨내기 위해 망치로 때리던 소리, 선박을 수리할 때 나는 망치 두드리는 소리에서 유래했다. 한때 못 고치는 배가 없다고 유명했던 깡깡이마을에는 여전히 공업사, 수리조선소, 창고가 줄을 지어 있다. 마을 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바다 냄새와 함께 기름 냄새, 그리고 망치 두드리는 소리, 철관 자르는 소리가 들린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깡깡이마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양다방 외관

선원을 올려주던, 양다방

깡깡이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양다방'은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주말이면 손님이 넘쳐난다. '양다방'의 주력 메뉴는 바로 계란 노른자를 올린 쌍화탕이다. 쌍화탕을 주문하면 사장님께서 땅콩샌드와 함께 견과류가 가득 담긴 쌍화탕을 내어준다.

'양다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카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산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양다방'은 1968년 개업하여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전화가 귀한 시절 사람

들은 전화를 하기 위해 공중전화가 있는 '양다방'을 찾기도 했다. '양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뱃일을 하는 선주나 선원들이었다. '양다방'의 주인은 원양어선 선주들에게 '선원을 올려줬다. 선주들은 '양다방'에서 선원을 구하고, 선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양다방'은 선원과 선주를 연결해주는 연락소 같은 공간이었다.

1990년대 이후 커피자판기가 생기고, 조선업과 원양어업이 변화를 겪으면서 다방을 찾는 손님이 줄어 다른 다방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다방'은 지금까지 처음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70~80년대 모습을 간직한 '양다방'은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근대문화를 체험하는 곳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겉모습은 잘 보존된 다른 다방과 다름없지만, 이곳에 녹아 있는 부산의 영도 이야기, 바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양다방'과 갯강이 마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양다방 내부 모습



에셋떼 외관

선박수리소를 고쳐 만든, 에셋떼(e.c.t. studio)

바다 건너편으로 자갈치시장이 보이는 선박장 앞에 위치한 '에셋떼'는 갯강이마을만의 고유한 매력과 빈티지한 감성이 어우러져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선박수리소를 개조해 만든 '에셋떼'는 선박수리소와 공업소, 그리고 선착장에 둘러싸여 있어 이곳에 카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장소에 있다. 하지만 '에셋떼'는 부산의 바다 냄새를 머금은 빈티지한 매력의 공간으로 소문난 카페이다.



에세떼 내부

‘에세떼’의 입구부터 느껴지는 빈티지한 분위기는 마치 외부와는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에세떼(e.c.t)는 감동을 주는 액자 속 공간(Espace dans les Cadres Touchants)라는 뜻의 프랑스어이다. 이름에 걸맞게 ‘에세떼’의 의자, 테이블은 빈티지 가구로, 카페 곳곳에는 앤틱한 소품으로 옛 프랑스 느낌을 재현해 놓았다. 카페 양옆으로 들어선 선반 위에 놓은 의자와 옛 공장의 지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천장은 부산 영도와 프랑스를 묘하게 섞어 놓은 느낌이다.

부산 영도의 과거를 ‘에세떼’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이 공간은 영도의 선박수리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에세떼’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옛 공장의 흔적과 카페를 둘러싼 바다, 배, 공업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다. 지금도 영도에는 8개의

수리조선소와 260여 개의 공업사가 있는 대한민국의 수리조선소 1번지이다. 영도 대평동은 여전히 수리조선업으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선박의 대형화, 조선소의 이동으로 인해 공장과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떠났다. 사람들이 떠나 자연스럽게 빈 공장, 빈집이 늘어난 이곳은 2018년부터 시작된 ‘강강이에술마을 프로젝트’로 인해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강강이에술마을 프로젝트⁹⁴’에는 수리조선업의 역사를 바탕으로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영도 도선복원, 퍼블릭아트, 문화사랑방, 공공예술페스티벌, 강강이크리에이티브 등이 포함되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인해 강강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지의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마을이 되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입구 밖으로 보이는 배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보며 영도 대평동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공간이다.

94 강강이에술마을사업단, 『강강이 마을 100년의 울림 : 생활』, 호밀밭, 2018.



모모스커피 원두창고

물양장의 창고를 개조해 만든, 모모스커피 영도⁹⁵

영도 봉래동 물양장 앞에 위치한 모모스는 부산의 ‘커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카페이다. 온천장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한 모모스커피는 어느덧 부산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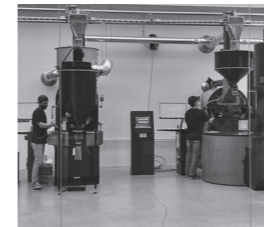
‘모모스커피 영도’는 과거 선박 관련 부품 창고였던 공간을 모모스커피만의 커피 철학과 부산의 커피 향을 담은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95 heypop, “커피를 감각하는 공간, 모모스커피 영도”(2022.07.12.)

이곳에서는 수입된 커피 원두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통유리창 너머로 수입된 커피 원두 포대가 쌓여있는 커피 창고와 로스팅 과정, 그리고 패키징 과정까지 볼 수 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해 한 잔의 커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음성 가이드로 들을 수 있다.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모스커피 영도’는 부산의 정체성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물양장에 자리한 ‘모모스커피 영도’를 찾아오는 길은 쉽지 않다. 부산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영도다리를 건너, 창고들 사이로 들어와서 마주하는 바다는 해운대, 광안리와는 다른 부산의 진짜 바다의 모습이다. 부산 사람들에게조차 낯선 부산의 바다는 모모스에서 전해주는 부산의 커피 역사와 만나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부산 바다가 가진 포용성, 개방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커피 문화를 싹틔워 지금의 커피 문화를 간직한 것이 아닐까. 모모스커피가 전하는 부산의 커피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 공간을 통해 더욱 반짝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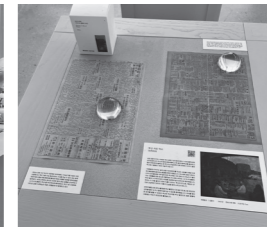
모모스커피 로스팅과정



모모스커피 커피바



모모스커피에 전시되어 있는 부산의 커피역사



항구에서 대해로

부산의 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백사장이 있는 해운대, 광안리, 송도 해수욕장을 떠올린다. 부산의 여러 해수욕장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관광의 목적지였다. 파도치는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즐길 수 있는 해안가 외에도 부산에는 항구, 어촌마을 등 다양한 모습의 바다가 있다.

‘바다’는 관광의 대상으로 카페 공간을 구성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했다.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듯,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를 관람한다. 카페공간은 바다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간으로 사계절 내내 부산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건축적 조형미가 뛰어난 곳이 많아 바다와 건축물을 함께 보는 재미가 있다.

최근에 카페가 항구를 넘어 대해를 바라보는 곳으로 확대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만하다. ‘항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이동과 교류 기능을 카페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전 시대의 특징이라면, 최근에 신설된 이른바 ‘오션뷰’ 카페는 경관 자체를 소비하는 관광의 속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계성을 갖는 젊은 세대들의 소통문화가 드러나기도 한다.



항구에서 대해로 - 부산의 카페

커피 바다, 부산

부산스러운 바다, 부산항과 작은 어촌마을

카페 피아크(P.ARK)

‘피아크’는 영도 동삼동 노후공업지대에 들어선 방주모향의 카페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카페이다. ‘피아크’는 ‘Platform of ARK for Creators’의 약자로 창작자를 위한 방주, 문화복합생산 플랫폼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 카페&베이커리로 가면 통창을 통해 오륙도와 부산항이 보인다. 테이블과 좌석은 바다를 향해 있고, 눈길 이 닿는 곳에는 바다가 있다. 550평의 넓은 실내 면적과 통유리로 된 2개의 면이 개방감을 선사한다. 계단형 좌석, 넓은 테라스, 통유리 창 앞 바

리스트와 사람들은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독특한 장면을 선사한다. '피아크'에서 우리는 초대형 건축의 조형미와 항구도시 부산을 느낄 수 있다. 이 카페는 도시 재생에서 단지 건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을 만들고 사람의 이동을 생성하려는 기획자의 의도가 복합된 산물이다



▲ 피아크 - 사람과 바다
▼ 피아크 내부



진목카페

강서구에 위치한 진목카페는 낙동강 하류,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다. 진목카페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작은 어촌마을이 있다. 진목마을의 서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며, 그 강변을 따라 염전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염전이 있었던 지역은 현재는 대과 등이 재배되는 농경지로 변화했다. 현재 진목마을은 5~6월에 주로 잡히는 채첩을 수확해서 판매하는 전국에서 유명한 마을이다⁹⁶. 작은 어촌마을에 있는 진목카페는 낙동강과 어촌이라는 이색적인 전망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 진목카페 야외좌석
▼ 진목카페 내부



96 부산특화지원센터, 부산역사문화대전

부산의 동쪽 끝, 기장바다

웨이브온 커피

부산의 동쪽 끝, 기장 월내리에 위치한 웨이브온 독특한 외관부터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2018년 한국 건축 대상 민간부문 본상을 받은 건축물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새파란 부산의 바닷가 오션뷰가 펼쳐진다.

‘바다, 그리고 파도 위의 휴식’이라는 슬로건답게 ‘웨이브온 커피’는 부산의 바닷가 전망을 가진 카페 중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⁹⁷. 웨이브온은 모든 좌석은 기장 바닷가를 향해 있으며 테라스와 실내, 그리고 루프탑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 테라스에 놓인 흰색과 하늘색의 파라솔 아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바쁜 도시 삶에서 벗어나 여유와 휴식을 선사한다. 특히 소나무 사이 빈백에 앉으면 낮은 자세로 바다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 바다의 파도와 햇별이 어우러져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97 웨이브온과 관련하여 네이버 방문자 리뷰는 약 9,700건, 블로그 리뷰는 약 5,400건이 있으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는 약 153,000개, 장소 태그 게시글은 약 30,000개가 있다.



▲ 웨이브온 입구
▼ 웨이브온 루프탑



커피 바다, 부산

헤이든

영화를 관람하듯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면 바로 ‘헤이든’이 아닐까. ‘헤이든’ 역시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헤이든’의 상징이 된 초록색 나무를 지나 미로 같은 통로를 따라 카페로 들어가는 과정은 부산 바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헤이든’에는 영화처럼 바다를 관람할 수 있는 실외 계단식 좌석과



▲ 헤이든 외부

◀ 헤이든 내부

통창 너머로 잔잔한 바다를 보며 멍때릴 수 있는 실내 좌석이 구비되어 있다. 또 테라스에서 계단을 이용해 바로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어 가장 바다를 아주 가까이서 보고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바닷가에 내려가 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았다.

서남쪽에 위치한 가덕도 카페

부산 서남단 끝에 위치한 가덕도. 2010년 가덕대교가 개통하기 전에는 가덕도를 가려면 부산신항만의 녹산 선착장에서 뱃길로 오갔지만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 시내에서 가덕도를 지나 거제도까지 오고 가게 되었다. 가덕도는 부산과 거제를 잇는 다리의 경유지였으나 현재는 가덕도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⁹⁸. 가덕도에 위치한 구디너프와 거가가가는 각기 다른 매력의 바다뷰를 선사하고 있다.

구디너프

‘구디너프’는 독특한 외관과 오션뷰의 대형카페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구디너프’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의 일부가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구디너프’를 찾는 사람들은 오션뷰를 보러왔는데 마운틴뷰도 즐기고 간다며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다 가까이 위치한 ‘구디너프’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98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dd9a811b-dd26-4969-989a-67c2502ffc4e



▲ 구디너프 외관

▼ 구디너프 내부

연경재 별채, 거가가가



거가가가 외관

커피 마다, 부산

가덕도의 오션뷰 카페로 유명했던 두문이 2022년 9월 '연경재 별채, 거가가가'라는 이름으로 재오픈하였다. 중앙동에 위치한 연경재는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한 커피 메뉴와 달항아리 모양의 디저트 등으로 유명하다.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연경재가 가덕도에 오픈한 별채 '거가가가'는 '거가대교 앞 커피집'을 뜻하며 도심을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연경재의 별채 '거가가가'는 한국스러운 인테리어에 가덕도의 오션뷰가 더해져 이곳에서의 경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여느 오션뷰 카페와 마찬가지로 ‘거가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창밖으로 바다와 반짝이는 윤슬이 보인다. ‘거가가’는 곳곳에는 소반과 방석이 놓여있는 좌식 자리가 있으며, 단체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좌석이 바다를 향해 있어서 바다를 보기 편한 공간이다. 특히 3층의 계단식 좌석에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주어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거가가 내부



흰여울길에서 보이는 바다

절영해안산책로와 선박들



흰여울문화마을에 위치한 오션뷰 카페

손목서가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해진 영도 봉래산 기슭의 흰여울길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흰여울길

은 봉래산의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바다로 굽이쳐 내리는 것이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듯 빠른 물살의 모습과 같아 흰여울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⁹⁹. 흰여울문화마을은 해안가 절벽 끝 바다를 따라 난 좁은 골목길 사이로 작은 집들이 자리 잡은, 피난민의 애잔한 삶이 시작된 곳이자 현재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공동체가 자리한 곳이다. 흰여울문화마을은 2011년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영도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 되었다. 14개의 골목길로 이루어진 흰여울길 골목골목에는 카페와 공방, 독립서점 등이 있다. 흰여울길을 걷는 내내 시선을 이끄는 바다와 그 위에 떠 있는 선박들이 눈길을 끈다. 영도와 송도 사이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 곳, 즉 묘박지의 풍경을 볼 수 있다¹⁰⁰.



손목서가 외관

99 영도문화원

100 Visit Busan



손목서가 내부

‘손목서가’는 예스러운 흰여울길의 정취와 절벽 아래로 펼쳐지는 부산의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카페이자 독립서점이다. ‘손목서가’의 1층은 독립서점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다양한 출판사와 작가의 책을 접할 수 있다. 또한 2층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테이블 주변으로 놓인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작은 주택을 개조한 ‘손목서가’는 규모는 작지만 독립서점이라는 문화적 경험과 영도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IV

커피 따라 부산 한 바퀴

1. 생두의 수입과 로스팅
2. 바리스타의 산실
3. 부산 커피 브랜드의 탄생
4. 커피를 특별하게 소비하는 사람들과 박물관
5. 커피 페스티벌과 커피 도시 부산의 미래

생두의 수입과 로스팅

부산은 항만시설을 갖고 있으며 생두의 90-95%가 부산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 이후 컨테이너, 특히 냉장 컨테이너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비중이 약간 줄기는 했다고 한다. 원두를 수입하는 모노스코프의 이일권 대표의 말에 따르면 최근 항공 거래 물량의 증가로 인해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생두의 비중이 약간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산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절대적이다. 수입, 통관, 검역이 이뤄지고 난 후 창고로 들어간 커피, 그 커피를 부산의 매장들에서는 하루 안에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커피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단 하루를 못 참는 커피매니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부산을 찾아 관광도 하고, 식도락도 즐기고, 커피를 마신다.

생두가 부산항에 도착하여 로스팅 이후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온라인으로 세계 커피 산지의 생두 경매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커피 매니아들은 어느 업체에서 얼마에 어떤 생두를 낙찰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고 부산에서 그 커피를 받았다면 부산에서만 판매되는 커피라는 의미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같

은 생두를 받아서 로스팅하여도 그 과정에서 커피의 향과 맛은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각 지방마다의 커피 브랜드가 가능한 이유도 로스팅되는 환경에 따라 풍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만의 '스토리'가 탄생할 수 있는 이유이며, 생두의 수입에서 로스팅까지의 공정이 짧다면 이른바 스페셜티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일권 대표는 부산이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생두나 가공 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 부산이 커피 시장에서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무산소발효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가공한 커피가 있는데, 과거에는 커피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졌지만,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변화에 한발 빠른 경향이 있다.

“일본은 새로운 시도에 소극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커피에 관해서는 얼리어답터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산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 대표는 이야기한다. 커피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 역시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 부산은 서울에 비해 커피 관련 교육열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육기관의 수도 많다.

바리스타의 산실

최근 전 세계 커피인 사이에서 세계 바리스타 대회나 호주 바리스타 대회에서 입상한 챔피언이 부산의 모모스 커피나 먼스커피에서 배출되면서 부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바리스타 전주연은 2019년 4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orld Barista Championship)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1위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테이블에 걸쳐 앉아 심사위원과 대화를 하는 모습, 커피에서 다당류를 추출하여 단맛을 만드는 등 신선한 모습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에 한국인 바리스타를 알리기도 했지만, 또한 그때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부산의 스페셜커피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커피 성분 중 탄수화물이 단맛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커피 공정 과정에서 다 손실되어 버리고, 실제로 한 컵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 손실된 다당류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희 모모스커피와 부경대 식품공학과랑 산학협력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쪽의 도움으로 버려진 커피 찌꺼기에 잔존해 있는 탄수화물을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WBC에서 재료로 활용했습니다.”(《중앙일보》, 2019-05-18)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전주연은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이 인구에 비하여 카페가 많은 것과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이미 해외에도 알려졌지만, 서울 중심으로만 생각하던 세계의 커피 애호가에게 부산을 소개한 것도 신선한 일이었다. 이제 그는 생두의 95%가 수입되는 부산을 스페셜티 커피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썼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과 모모스커피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대에 부산에서 전포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같이 성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uncle’로 소개하는 곳은 블랙업커피(Black Up Coffee), 인 어스커피(In Earth Coffee), 마비스 커피(Marvis Coffee) 등이 있다. 부산의 여러 곳에서 독창적인 커피의 맛과 장소를 만들어 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07년에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커피와의 인연인 그는, 2009년 입사한 모모스 커피 온라인 팀에서 스페셜티 시장을 조사하러 미국에 간 것이 계기가 되어 바리스타가 되기로 준비를 시작했다. WBC에 참여하기 위한 꿈을 꾸던 그가 국가대표가 된 것은 2018년이었으나,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는 시연 중 실수를 해 14위에 그쳤으나 2019년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부산을 커피 도시로 키우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한다.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춘부심’이 있다고 했다.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마시는 사람이 상생해야 지속가능한 스페셜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커피산업 자체를 확대해야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

모모스커피



3 _____

부산 커피 브랜드의 탄생

커피 마다, 부산

최근의 커피 시장에서는 전국 유통이 아니라 지방에서 시작한 커피 브랜드가 다수 생겨나고 있다. 부산의 커피 브랜드는 부산에 기반을 두고, 커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여러 부산의 커피 브랜드 중 ‘모모스커피’와 ‘블랙업커피’는 부산의 커피 문화를 선두하는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¹⁰¹ 브랜드이다. ‘모모스커피’는 2007년 온천장에 위치한 한 식당의 창고를 개조하여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온천장 본점과 영도 봉래동에서 모모스커피 영도 커피바를 운영하고 있다.

‘모모스커피’는 원두의 품질과 커피의 맛을 위해 아프리카와 중앙 아메리카 등 전 세계의 커피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구매한 원두를 사용한다. 또한 ‘모모스커피’는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전주연 바리스타가 속한 회사로도 유명하다.

101 스페셜티는 지리, 기후, 생산지 등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커피 중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A)’의 평가를 거쳐 기준 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한 등급의 커피를 말한다.

전주연 바리스타가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였듯이 세계적인 바리스타의 탄생은 '모모스커피'가 커피 맛뿐만 아니라 소속 바리스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주연 바리스타는 '모모스커피'의 지원을 받아 세계의 여러 커피 산지 방문하여 농장들과 교류하고, 원두감별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모모스커피는 2021년 12월 영도 커피바의 오픈과 동시에 2021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World Cup Tasters Champion)에 오른 추경하 바리스타를 영입하였다. 이로써 '모모스커피'는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연 바리스타에 이어 세계 커피계를 제패한 커피 챔피언 2명이 일하는 커피 회사가 되었다¹⁰².

'모모스커피'는 품질 좋은 커피를 합당한 가격에 구매하여 높은 품질의 커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람 중심의 커피 시장"을 표방하고 있다.

102 부산일보, "[단독] 영도 모모스커피션 '세계 챔피언' 둘이 커피 내린다"(2021.12.21.)



전주연 바리스타와 추경하바리스타의 챔피언트로피

커피 바다, 부산



모모스커피 시그니처 '부산 블렌드'

‘모모스커피’는 온천장과 영도 봉래동 두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모스커피 영도’에서는 수입된 원두부터 로스팅, 패키징, 그리고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장면까지 커피 한 잔에 담긴 과정을 모두 눈으로 볼 수 있다. 모모스커피는 단맛과 밸런스에 포커스를 둔 시그니처 블렌드 ‘부산’ 선보이고 있다. ‘부산 블렌드’ 패키지에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지은 작가와 협업하여 부산의 시화인 동백꽃과 함께 부산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블랙업커피



블랙업커피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품

‘블랙업커피¹⁰³’는 2007년에 오픈한 서면 매장을 중심으로 울산과 거제, 양산까지 총 9개의 직영점이 운영 중이다. ‘블랙업커피’는 2006년 부산 남포동에서 ‘커피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2013년 ‘블랙업커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블랙업커피’는 ‘모모스커피’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의 선두주자이다.

‘블랙업커피’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로스팅웍스를 두어, 커피 유통을 위한 생두 수입, 로스팅, 제품 디자인 등의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블랙업커피’ 역시 커피제품과 커피 기구를 판매하고 있으며, 부산 청년 작가 썬메이와 협업하여 커피 제품 부산을 담은 커피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블랙업커피’는 커피를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커피의 맛을 감별하는 커피핑과 커피에 관한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공간에서 커피를 맛있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103 블랙업커피 홈페이지

제시한다. 이는 ‘커피 맛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좌로 ‘블랙업커피’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2010년대에는 뽕다방, 메가MGC커피, 킴포즈 커피 등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생겨났다. 한 잔에 1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의 밥보다 비싼 커피시장의 틈새를 공략하였다.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는 저가 커피 브랜드를 찾기 시작했다.

저가 커피 브랜드는 주로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하며, 매장 내에 작은 테이블 4~5개를 두거나 매장 내에 테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다. 테이크아웃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 커피브랜드의 증가로 인해 길거리에서 한 손에 커피를 든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저가커피의 등장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커피전문점이 생겨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부산의 커피 브랜드는 저가 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다. 2014년 부산대학교 앞에서 벤티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를 1,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던 더벤티의 성공을 시작으로 킴포즈, 더리터 등 부산 향토 커피 프랜차이즈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는 배러먼데이, 하삼동, 텐퍼센트 등 부산 향토 커피 브랜드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 확장세를 펼치고 있다. 부산 향토 커피 프랜차이즈의 전국 가맹점 수는 2018년 981개, 2020년 1,545개, 2021년 2,529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¹⁰⁴.

104 부산일보, “부산서 출발 커피 브랜드, 전국 저가 커피시장 ‘호령’”(2021.12.15.)

4

커피를 특별하게 소비하는 사람들과 박물관

커피는 어느새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커피가 다양화되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커피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커피는 단어 그대로 커피가루를 끓인 물에 타서 마시는 차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업무 중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잠깐의 휴식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반가움과 추억,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에서 커피 한잔은 쉼과 여유를 뜻한다. 많은 사람이 커피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커피 역시 다변화되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인 카페 역시 다양화되었다.

인스타그램머블 카페

SNS 인증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머블 카페와 디저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able)은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할 수 있는(able)’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사진이라는 뜻으로 인증샷 문화와 맞물려 형성

된 트렌드이다¹⁰⁵. 20~30대들은 인증샷을 위해 인스타그램러블한 카페를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이에 개성 있고 독특한, 트렌디한 카페와 디저트가 SNS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인스타그램러블한 카페는 핫플레이스가 된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인증샷을 남길만한 포토존과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텐퍼센트

컴포즈커피

105 MNB, "SNS 인증샷 유발, 시선 강탈 '인스타그램러블 디저트' 인기" (2022.08.02)



피크스퀘어



전포 구프커피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박물관

이성훈 부산학당 대표는 재야에서 커피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많은 사람은 그를 여전히 '선장님'이라 부른다. 일찍부터 외항선을 탄 이성훈은 일찍부터 해외의 커피를 접했고, 지적 호기심으로 부산 커피와 부산 도시를 연구하고 자신의 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눠 왔다. 보수동에서 만난 이성훈 대표는 뽁뽁하게 가득 찬 책 속에서 커피와 관련된 소중한 자료를 보여 주었다.

최근 이성훈 대표는 민건호의 『해은일록』에 커피를 마셨다는 음용 기록을 찾아 설명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다.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에서는 조선에서 가장 빠른 기록일 것이라는데 그 장소가 부산 해관의 직원인 윤정식의 집이었다고 한다. 해은일록을 꺼내어 해당 부분을 펼쳐 주면서 자신이 해은일록에서 커피와 관련된 부분을 찾기 위해 고생한 노력을 공

유해 컸다. 초서로 쓰여 있는 몇 권의 두꺼운 원본에서 커피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터였다. 부산에 세관을 만들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활동하는 서양인을 불렀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과정에 수입된 커피를 이들에 대접하거나, 조선인도 따라서 같이 마시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성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31년 동안 배를 타고, 연구에 전념하게 된 것은 7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다니면서 여러 책이나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이 호기심의 근원이었고, 커피를 젊은 시절부터 좋아해 부산의 다방이나 커피숍에 많이 찾았던 것이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본인을 지역 문화 독립연구자라고 소개하는 김만석은 부산 커피의 전래나 현재까지의 커피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는 1970년 미국 공보처가 부산의 학생들과 수행한 다방 연구를 '사회적 공간으로 다방'을 주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연구는 부산에서의 커피가 소개된 유래된 부분에서도 흥미롭지만 사회적 공간으로 다방이 역사적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1883년 부산 해관이 들어서면서 외국인 해관장이 부임하고 이들과 함께 일한 조선인이 커피를 마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만석 작가는 "꼭다 점이나 다방은 커피를 마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말들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포카페거리에는 민간박물관인 '부산커피박물관(Busan Coffee Museum)'이 있다. 김동규 관장이 1600년대부터 1800년대의

커피 그라인더와 추출기, 커피잔 등을 수집하여 이 공간에 갤러리처럼 조성했다. 이곳에는 정기적으로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이 모이고 이들은 교대로 도슨트 역할을 하며 방문객에게 커피 관련 기기에 대해 설명한다.



부산커피박물관 입구



커피 기기를 설명하는 모습

2022년에는 옛 부산진 역사에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이 준공되었고, 이 시설의 일부는 국제커피박물관(International Coffee Museum)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초 고종황제가 사용하던 비긴(여과기가 있는 커피포트) 등 세계의 커피 관련 기구 2,0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국제커피박물관

국제커피박물관에는 전시와 함께 커피 관련한 학습 교실이 열리고 있다. 30년 넘게 수집한 2,000점이 넘는 귀중한 물건의 기증자는, ‘한 시민’이다. 박물관 공간이 마련되는데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사설보다는 공공 기관이 맡아주기를 바라는 기증자의 희망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어쨌든 지금은 동구청이 공간을 제공하여 운영되고 있다. 부산에는 일찍부터 커피에 관심을 갖

고 세계 곳곳에서 물품을 수집하고, 현재도 부산 시민에게 커피 교실을 열어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 셈이다. 이 박물관에는 가장 오래된 커피 추출기구인 터키식 커피 추출기구 이브릭(Ibrik)과 체즈베(Cezve)부터 세계 커피 300년 역사를 집대성한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달임식, 우림식, 여과식, 가압식 각 커피 추출 방식의 원조 기구부터 미국, 영국, 독일 등지 각국 커피 추출기구 변천사까지 모두 볼 수 있다.

커피 페스티벌과 커피 도시 부산의 미래

부산에서 최근 카페가 생기는 곳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자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 아닌 경우가 많다. 조선소나 선박 수리 시설이 폐쇄된 곳에 대규모의 카페 문화공간이 생겨나기도 하고 대해를 바라보는 해변가에 베이커리를 병행해서 개점된 곳도 많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공간에 생겨난 카페가 여전히 있는 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만 접근 가능한 해변가의 카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 공간으로서의 카페뿐만 아니라 관광을 위한 목적지로서의 카페도 많이 등장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카페거리를 만들거나 관련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커피 관련 축제나 거리를 만들어 내려는 흐름은, 단지 카페뿐만 아니라 커피를 가공하고 추출하여 판매하고, 카페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행사를 여는 일련의 과정을 모든 통합하는 개념이다. 특히 부산은 커피도시를 표방하면서 커피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커피 축제에는 영도커피페스티벌이 있다. 커피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거나 비즈니스 컨설팅 등 커피 관련한 산업 종사자

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일명 카페거리 중 하나인 영도의 봉래동 물양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 행사는 영도를 커피와 관련한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전포 카페거리에서도 커피와 관련한 행사가 해마다 열린다. 2021년에 있었던 행사에서는 커피 DIY 컨테스트 등, 커피를 소비하는 개인 소비자에 초점을 둔 행사가 많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커피는 개인들 취향에 따라 자신만의 커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추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매년 여름에 BEXCO에서는 ‘부산 커피쇼’가 개최되어, 이 행사에는 커피업계 전문가들이 신제품, 마케팅, 창업, 매장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신메뉴 개발이나 마케팅을 위한 전시회 성격이 강하여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산의 커피와 관련한 장은 하나의 단일한 흐름보다는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커피와 관련한 원로 전문가는 지나치게 상업적,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해지거나 공급자 중심의 커피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에 우려를 표시하곤 한다. 하나의 흐름보다는 여러 골목과 장소에서 다양한 커피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부산의 커피를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카페는 하나의 장소이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개인의 여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각지게 마시려면 기늘게 에스프레소처럼, 물도 뜨겁게
등글게 마시려면 천천히, 왔다가 사라지게, 천천히
물의 온도, 온도가 높으면 각진 맛, 낮으면 둥근 맛

우리가 향을 올릴 것인가, 맛을 살릴 것인가
끓이는 방식, 맛을 위주로 팔팔 끓인다
내리는 방식, 향을 위주로 온도를 낮춘다
향을 가둔다. 날아가 버리는 것은 천사의 몫,
나는 다 좋아해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의 맛,
컨디션이 같아도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의 맛,
똑같아도 맛이 달라

- (가비방 창업자, 정동웅)

부산은 커피 도시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해 본다. 오랫동안 부산 커피를 만들어 온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최근의 이야기가 마케팅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한다. “작지만 제대로 하는 것”, “불편하고 인간다운 진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커피는 문화이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커피를 같이 마시는 사람, 커피를 통해 연결되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단번에 많은 잔을 내리는 것은 이미 스페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산이 커피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

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화 하나하나가 모체가 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을 원로분은 강조했다. 부산 커피가 더욱 다양해져서 주전자에 끓이는 사람, 드립, 맷돌에 갈아서 내리는 사람 등 다양해져야 한다.

또 다른 커피 원로는 카페만 부각되는 홍보로는 커피 도시가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 산업대로 가고 문화도 병행해서 존재하며 뒷받침이 되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단기간의, 급속적인 성장은 기계를 중심으로 한 저품질의 대량생산이며, 카페만 부각되는 것은 커피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빠진 껍데기만의 성장이라는 점이다.

부산의 카페는 한국의 역사를 함축하는 공간이다. 특히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맺는 기능을 해 온 것이다. 커피를 보다 일찍 맞이했던 공간이며, 바다는 물질과 인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기능을 잃지 않아야 산업의 발달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사료집

『음청사』, 『통상회편』, 『해은일록』, 『윤치호일기』, 『독립신문』, 『부산일보』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3, 문교부국사편찬위원회, 196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5권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
IV·1891~92, 국사편찬위원회, 2006.
『황성신문』, 『민주중보』, 『조선신문』, 『부산신문』, 『부산일보』, 『조선시
보』, 『동아일보』
김승·양미숙 편역, 김한근 사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편,
『신편 부산대관』, 2010, 301쪽

2. 저서

강동수 외, 『추억을 마시다 공간에 스며들다 부산의 다방』 부산문화재단,
호밀밭, 2018.
김시현·윤여태, 『개화기 한국 커피역사 이야기』, 피아리스, 2021.
이길상, 『커피 세계사+한국 가배사』, 푸른역사, 2021.
이순욱 외,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풍경』,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

구센터, 2018.

최태호, 『근대한국경제사 연구서설: 한국 관세제도와 민족경제』, 국민대
학교출판부, 1991.

星田 宏司, 『黎明期における日本珈琲店史』, いなほ書房, 2003.

メリー・ホワイト 著, 有泉英美代 訳, 『コーヒーと日本人の文化誌: 世界最
高のコーヒーが生まれる場所』 創元社, 2018.

3. 논문 및 강연

U.S. Information Agency,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TEA ROOMS AND COMMUNICATION IN KOREA,
April 8, 1970.

강찬호, 「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개화기와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8-3, 2013.

김순하, 「한국 커피시장의 발전과정에 관한 문헌적 연구-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2-3, 2013.

남영희, 「해방기 부산 음악사회의 동향과 연주단체」 『지역과역사』 47,
2020

노상윤, 「開港期 朝鮮市場을 둘러싼 淸日의 貿易競争과 收奪에 관한 研究」,
경성대박사학위논문, 1990.

송정숙, 「조선 개항장의 감리서와 기록-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항 감
리서 방판 민진호와 그의 일기 해은일록』, 부산근대역사관, 2014.

- 윤광운·김재승, 「구한말 개항기 조선 해관에 관한 연구 -고빙 외국인 해관
원의 임면과 근무상황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연구』 10-2, 2004.
- 이성훈 <조선 갑비의 모카, 부산> 강연(2021. 11. 21. 부산테크노파크
“커피에 산업 향기를 짓다” 부산 신산업 발굴 시리즈1)
- 이은희, 「근대 한국제당업과 설탕 소비문화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이훈상, 『부산항 감리서 방관 민건호와 그의 일기 해은일록』, 부산근대
역사관, 2014.
- 전성현, 「일제시기 부산의 중심 상점가와 도시문화」 『역사와 경계』 92,
2014
- 조세현, 「개항기 부산의 청국조계지와 청상(淸商)들」 『동북아문화연구』
25, 2010.
- 坂井 素思, 「コーヒー消費と日本人の嗜好趣味」, 『放送大学研究年報』 25,
2008.

2022년도
부 산 학
연구총서
참 여 자

저자

정법모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이미란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이정혜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연구원
박하영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연구원

기획위원

김영일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용규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은영 부산일보 부국장
김홍기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창희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차용범 前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명흠 前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창의융합학부 교수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손현일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민경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엮음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가현 부산연구원 연구원

2022
부 산 학
연구총서

커피바다, 부산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발행인 신현석
저 자 정법모 이미란 이정혜 박하영
발행처 (재)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제 작 (주)호밀밭
ISBN 979-11-6886-048-3 (93320)

(재)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8, 9F 부산연구원
T. 051)860-8869 F. 051)860-8688 <http://www.bdi.re.kr>

- 본서는 부산연구원(BDI) 부산학연구사업의 하나로 발간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부산학연구사업 공모 결과물로서 부산연구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서에 사용된 이미지 자료는 기본적으로 모두 저작권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단, 별도의 출처표기가 없는 이미지 자료는 저자의 직접 촬영 또는 소장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